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4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18호
http://www.snua.or.kr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 光 洙 / 편집인 孫 一 根 / 편집주간 許 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선배의 정성, 후배의 향학열 드높이리라!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동창회 임원들과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창회 2학기 장학금 수여 〈관련기사 3~4면〉

새 인재 배출 … 후기 학위수여식 〈관련기사 18면〉

관악춘추

졸업생들, 당당하고 겸손하게

올해 후기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오랜 노력과 인내 끝에 서울대 졸업생이 된 이들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졸업생 가운데엔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거나 취직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미처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힘겨운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 만큼 기쁘고 뿌듯하겠지만 한편으로 착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졸업은 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의 경우 학교가 아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출발일 수 있다. 서울대 동문이 된다는 건 일생동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부러움에서 비롯되는 질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서울대 동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실로 크다. 실력 면에서 탁월해야 함은 물론 사회와 시대에 대한 의무를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위를 배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또한 잊지 말라고 강조한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식의 편잔을 받을 수 있다. 남들 같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일이나 행동이 서울대 출신에겐 국가 사회가 준 특혜와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괘씸한 짓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어디 잘하는지 보자」는 식의 매서운 눈길이 주어지는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사회 각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기존 동문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거니와 이제 대학문을 갓 나선 새내기 동문들에겐 더욱더 힘겨울 수 있다. 남달리 날카로운 시선과 주목은 격려와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견디기 버거운 압박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부담과 압박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 엘리트로서의 서울대 동문에 대한 선망과 기대 때문이다. 서울대 동문이 됐다는 건 학창시절 남보다 더 노력한 결과 무슨 일이든 잘해낼 수 있는 크나큰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대 동문에겐 주위의 눈길에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잘 구현해낼 책무가 있다. 진정한 엘리트는 지적 능력은 물론 기개와 용기, 너그러움, 남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으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지고, 사회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갖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한편으로 세상은 냉정하고 시선은 차갑다. 예컨대 서울대 졸업장이 프리미엄이기는커녕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독한 입시지옥을 견뎌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마음과 크나큰 포부, 재학 중 무시로 닥쳐온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와 도전의식으로 재무장하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교문을 나선 졸업생들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되 겉으로 드러내 주위의 눈총을 초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괜히 겁내거나 기죽지도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서울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했으면 싶다. 어울려야 할 때와 혼자 있을 때를 구분하고, 무슨 일이든 기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서울대 동문이 되기까지의 끈기와 노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겸손한 자세로 더불어 살아가면 금부는 실로 눈부실 것이다. 〈聖〉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炳均, 南仲九, 金鎭銅, 金好俊, 宋鎭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奚天錫, 李元燮, 李昌馥, 朴聖煥, 朴勝俊, 金鎭國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느티나무광장

도덕 재무장 운동

金 鎭 鋼
내일신문
객원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혼란을 넘어 잔혹하기까지 하다. 어느 한 시대라도 화평을 구가했던 때가 있었을까 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돈과 몰인간 비윤리의 도가 더욱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바깥 세상은 참혹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패권주의와 생명경시 풍조 때문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도 사랑과 화해의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층과 공직사회, 재계와 노동계 교육계까지 이기와 거짓으로 가득하고 끔찍한 비리와 부정, 무례와 파괴가 임상사인 것처럼 보인다. 양심과 인간성은 마비된 채 갈퀴고 물고 늘어지는 갈등과 반목의 전쟁터나 다름없다. 홍익과 청빈, 높은 도덕성에 바탕한 선비정신이나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덕적 가치는 박물관의 박제가 된지 오래인 것 같다.

이같이 「양심과 인격실종 사건」이 폭주하여 어지럽고 짜증나는 삶 속이라서 그런지 「도덕재무장운동」에 대한 갈증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도덕재무장운동은 미국의 성직자 프랭크 부크먼이 창시한 인간성 회복과 새로운 세계질조를 위한 신성 및 의식개혁운동이다.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無私) 절대사랑 등 네 가지 덕목을 신조로 해 일상생활에서 양심운동, 인격운동, 생명운동, 인간성 회복운동, 정신혁명운동, 의식개혁운동, 문명구제운동의 실천을 촉구한다. 바로 우리 정치 사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깊이 병든 한국 정치와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 할 만하다.

이 운동은 낯설지도 않다. 이미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 65~66년 두 차례 창시자 부크먼의 방한을 계기로 전파가 활발했으나 새마을운동의 기세에 밀려 열기가 꺾였던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나머지 의식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다시 도덕재무장운동에 불을 지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감동이나 희망이 없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양심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만큼 절실한 것도 없을 것이다. 과거사 캐기, 의문사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잃어버린 인성을 되찾고 삶의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만큼 급하지는 않다. 이 의식개혁운동의 재출발을 대통령이 발의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직 대통령이라서 하기 어렵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도 좋을 것이다. 미국의 前대통령이 「집짓기 운동」을 하듯 봉사하는 여생은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문칼럼

백제 개로왕의 비극

韓 永 愚
(62년 文理大卒)
모교 명예교수
한림대 특임교수

수도를 공주 부근으로 옮기는 일도 찬반 여론이 비등하는 참에 그 민간추진위원장이 남북전쟁을 가상하여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는 듯한 발언을 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판국에 국방책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와 더욱 불안해진다.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신수도 후보지가 서울 남쪽이라는 데서 패배주의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1천5백년 전에도 서울에서 공주로 천도한 사실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5백년의 한성시대 백제가 전성기를 이룩하고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면, 공주백제와 부여백제는 몰락의 시대였다. 서울을 포기한 개로왕 이전의 백제는 5백년간 삼국 가운데 최강의 국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또 중국 각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일본왕을 제후로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국보인 저 유명한 칠지도는 바로 근초고왕이 3백69년에 하사한 칼이다.

이왕 개로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삼국사기」에 실린 개로왕 21년, 서기 4백75년의 비극이 떠오른다. 고구려 장수왕이 3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위례할 뜻산인 아차산에 진을 치고 먼저 북쪽 壬城을 7일만에 함락하고, 이어 개로왕이 있던 남쪽 왕성을 둘러쌌다. 당황한 개로왕은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걸루 등에게 붙잡혀 아차산으로 끌려가서 참혹하게 죽었다. 걸루는 백제사람이었으나 죄를 짓고 고구려로 망명한 자였다.

그런데, 개로왕의 비극은 사실은 장수왕의 뛰어난 심리전의 결과였다. 한성의 지세가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지여서 무력만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장수왕은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스파이전을 폈다. 바둑이 뛰어난 승려 道琳을 첩자로 보내 개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여 국력을 탕진하도록 권유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전 국민을 동원해 궁실, 누각, 성곽 등을 짓고, 큰돌을 캐다가 왕릉을 만들었다. 그 결과 국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하여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백제의 국력이 허물어진 것을 본 도림은 고구려로 도망가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왕은 드디어 군대를 보내 쉽게 승리를 거뒀다. 장수왕의 출병소식을 들은 개로왕은 아들 문주를 불러 이렇게 한탄했다. 「나는 어리석어 간사한 자의 말을 믿다가 이렇게 됐다 …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나 너는 난리를 피해 있다가 왕통을 이으라」

개로왕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백제는 전혀의 요새지인 한성에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을지도 모른다. 「삼국사기」의 저자 金富軾은 백제의 교활함과 내분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썼으나 19세기 실학자 茶山 丁若鏞은 달리 해석했다. 바로 최상의 도읍지인 한성을 버린 천도에서 백제멸망의 원인을 찾았다.

개로왕의 비극으로부터 1천5백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또다시 힘겹게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런데 지금 개로왕처럼 어리석은 통치자도 없고, 장수왕 같은 영걸도, 도림 같은 첩자도, 걸루 같은 배신자도 없는 듯한데, 왜 스스로 분주왕 신세가 되려 하는가. 국민의 사기를 키워도 부족한 시기에 왜 빽기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안타깝다.

회관건립 위한 도시계획변경 신청

환경·교통영향 평가 용역업체 선정키로

본회 회관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林光洙위원장, 辛東一수석부위원장, 孫一根·孔大植부위원장, 尹勳煥위원, 본회 朴英俊감사, 許 瑄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林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관건립을 위한 관계당국의 허가절차, 회관건립위원회 구성 완료,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됐다.

현 동창회관의 재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첫 번째 절차인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맡아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개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林위원장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1년 정도 소요되는 일이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일전에 사무총장이 건립위원 및 기타 유력 동문에게 추천받은 전문업체 몇 곳에 우리 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경합을 시키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회관건립위원회 고문과 지도위원 등 내부시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기로 했다. 또 회관건립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동창회 상임이사회와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승인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辛수석부위원장은 「회관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동문들이 많다」며 「이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절차와 투명한 건립과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번 회관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기금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朴감사는 「건축에 관한 회계는 재단법인 관악회 내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孫부위원장은 「신관건립을 통해 임대사업의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장학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장학사업이 주목적인 재단법인 관악회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협조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林위원장은 「최근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장학금 지급 액수와 수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회관건립시 임대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장학생 수도 그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 尹위원은 「만약 동창회에서 재개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1층에 은행을 유치해 충당하고 그 대신에 분양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정확한 회관의 규모, 완성 시기는 도시계획변경이 끝난 다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南)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위해 앞장서는 서울大人되길"

본회·단과대 동창회 올해 장학금 총 8억5천5백여만원 수여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5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4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교 재학생 1백17명에게 2억6천1백45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2004학년도 1·2학기 장학금으로 본회가 2백35명에게 5억1천9백34만8천원을 수여했으며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2백14명에게 3억3천6백50만1천원을 전달함으로써, 올해 모교 재학생 총 4백49명에게 8억5천5백84만9천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본회 許 瑄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식사를 통해 『얼마전 모교 黃禹錫교수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거절해 서울大人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며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업과 연구에 더욱 열정적으로 정진해나갈 때 제2, 제3의 「黃禹錫교수」가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열쇠를 쥔 이 나라의 희망이자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서울大人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은 격려사에서 『모교도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많은 선배 동문들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학생들을 사회의 부족함을 채우며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교육하고, 나아가 재학생 모두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의 절반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원대 李吉女(57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총장이 특지장학금 1억원(2구좌)을 추가로 출연하겠다는 약정서를 林光洙회장에게 전달했다. 李총장은 지난 96년 특지장학금 1억원을 출연해 그동안 39명의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金珉妍(역사교육과 4년)양이 장학생을 대표해 답사를 했다.

또 모교 李浩哲(성악과 4년)군이 뛰어난 가창력으로 張賢柱(기악과 3년)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金東振의 가곡 「목련화」를 축가로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辛東一·金讚淑·郭永駿·李炯均·鄭忠始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鉉·鄭哲圭·姜聖哲·朴明潤·鄭八道·金秉鎬이사, 본보 南仲九·金仁圭논설위원, 許 瑄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鄭雲燦총장, 李美娜학생처장, 간호대 金錦順부학장, 치대 柳寅哲교수, 보건대학원동창회 申碩釪회장, 수학과동창회 金永煥회장, 인터비즈시스템 禹仁性회장, 李元珪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일성 李章恒고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綺雄전무, 상영무역 尹光枏이사, 심양정수공업 張明根사장, 무한투자 金性均사장, 성지출판 洪尙郁사장 등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右)이 우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교 鄭雲燦총장(右)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李吉女총장(左)이 林光洙회장에게 특지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함.

孫一根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李美娜학생처장 장학금 수여

鄭哲圭 특지장학금 수여

보대원동창회 특지장학금 수여

52명에 특지장학금 수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회장 金柱津·54년 法大人)가 설립한 「亞南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綺雄전무가 모교 재학생 金俊奭(인류학과 3년)·趙仁國(컴퓨터공학부 3년)·金東均(기계항공공학부 4년)·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박사 1년)·任桃均(기계항공공학부 박사 2년)군, 金所炯(외교학과 2년)·金雅鎬(디자인학부 3년)·尹水仙花(재학학과 석사 1년)양 등 8명에게 2천1백41만원을 전했다.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이사장과 아들 韓榮(85년 醫大卒·청아치과병원장) 등문이 설립한 「金讚淑·韓 榮 특지장학금」을 통해 金이사장은 이날 모교 치의학과 李修彩(3년)·林相敏(1년)양, 朴勝範(4년)·金學成(2년)군 등 4명에게 1천3백21만4천원을 수여했다.

임광토건 林光洙(52년 工大卒·본회 회장)회장이 설립한 「林光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林회장은 모교 재학생 宋美愛(생물교육과 4년)·李愛娜(의류학과 4년)양, 朴庸主(지리교육과 1년)군 등 3명에게 총 4백50만원을 전달했다.

신양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관악회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鄭哲圭 특지장학금」으로 鄭이사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崔兌圭(기계항공공학부 석사 1년)·金倫煥(응용화학부 4년)·姜鎭注(원자핵공학과 3년)군에게 6백88만2천원을 수여했다.

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관악회 이사)이사가 설립한 「金秉順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金이사는 모교 재학생 朴達率(법학부 4년)·金鍾新(의학과 3년)군, 李貞熹(서양화과 4년)양에게 6백37만5천원, 수학과동창회(회장 金永煥)가 설립한 「수학과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 金회장은 이날 모교 수리과학부 金鍾昱(4년)·李辰旭(3년)군, 李玉仙(3년)양에게 총 3백만원을 수여했다.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이 설립한 「洪性大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鄭雲慶(의학과 4년)·崔埈榮(원자핵공학과 2년)군이 총 4백만원을 받았으며, 경원대 李吉女(57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이 설립한 「李吉女 특지장학금」을 통해 이날 李총장이 모교 蔡奴廷(인류학과 4년)·金柳翊(사회교육과 1년)양에게 3백49만3천원을 수여했다.

일성 張世一(63년 工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張世一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일성 李章恒고문이 모교 金載永(경영학과 2년)·金敏爀(사회대 기초과정 1년)군에게 3백61만9천원, 코리아펜드캄파니 鄭八道(1기 AIP·본회 부회장·관악회 이사)대표가 부인 李慈倖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을 통해 鄭대표는 이날 재료공학부 金杜炅(4년)군, 경영학과 金秀泫(1년)양에게 3백90만9천원을 수여했다.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이 설립한 「李鍾基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상영무역 尹光枏이사가 모교 경영학과 趙宰敏(4년)군, 朴倖珍(2년)양에게 3백24만원, 유니온테크 安聖哲(63년 法大卒·관악회 이사)회장이 부인 孫鶯淑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安聖哲·孫鶯淑 특지장학금」을 통해 安회장은 이날 모교 법학부 尹勝珠(3년)·李賢珠(3년)양에게 3백33만2천원을 수여했다.

지질과학과동창회(회장 蔣奭槿)가 설립한 「孫致武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尹俊然(4년)군, 申智瑚(4년)양 등 2명이 2백만원을 받았다.

(4면에 계속)

각 단대 동창회 장학금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2학기 장학금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동창회(회장 兪淑子)=5명 : 3백50만원 ▲법대동창회(회장 丁海昌)= 28명 : 4천5백41만9천원 ▲사대동창회(회장 李相周)=2명 : 3백90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朴容晟)=40명 : 6천5백48만8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在宰)=2명 : 7백17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善)=5명 : 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韓相宇)=1명 : 2백97만6천원 ▲치대동창회(회장 梁鍾植)=4명 : 1천3백21만4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2명 : 7백76만2천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2명 : 3백만원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申碩釪)=1명 : 2백76만6천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決鎬)=6명 : 3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俠)=2명 : 2백만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吳石錫)=3명 : 1백50만원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英淑)=2명 : 60만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朴空相)=1명 : 3백50만원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

임기 만료 이사 5명 재선임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 중식당 三寶園에서 제9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 심의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洪性大상임이사, 鄭晉圭·孫一根·李吉女·李炯均이 사가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林이사장은 「4년동안 관악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이사장, 明泰鉉·鄭晉圭·孫一根·安聖哲·李炯均·朴明潤·鄭八道·金秉順이사, 모교 鄭雲燦총장, 李美娜학생처장, 본회 辛東一·金讚淑·郭永髮·鄭昶始부회장, 許瑄사무총장, 본보 南仲九·金仁圭논설위원, 보건대학원동창회 申碩釪회장, 李元珪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무한투자 金性均사장 등이 참석했다. (表)

미술대학

모교에 도서구입 기금 전달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사진 右)는 지난 7월 3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모교 미술대학 權寧傑(76년卒)학장(사진 左)에게 「학술정보자료관」 도서구입 기금으로 1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李회장은 이날 「작으나마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權학장은 「학창시절 자료를 찾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서관의 서적들이었으나 당시 도서관의 자료가 너무 부족해 지적 호기심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상한 뒤 「도서구입 기금을 잘 운영해 학생들이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학술정보자료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치과대학

친목 골프대회 개최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梁源植)는 지난 8월 26일 용인 프라자CC에서 제7회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타이거 코스에서 진행된 챔피언조에서는 姜泰聲(77년卒)동문이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단체 우승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31회 동기회(회장 金在燦)에게 돌아갔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핸디캡조에서는 車敬石(79년卒)동문, 여성부에서는 金讚淑(60년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골프대회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챔피언조 준우승 : 朴鍾郁(86년卒)동문, 3위 : 孫在雲(77년卒)동문, 4위 : 韓源一(91년卒)동문, 5위 : 明鎭源(85년卒)동문.

▲핸디캡조 준우승 : 李壽久(72년卒)동문, 3위 : 金健一(69년卒)동문, 4위 : 趙炳福(59년卒)동문, 5위 : 金東均(84년卒)동문.

▲여성부 준우승 : 具玉順(68년卒)동문, 3위 : 文敏蓮(62년卒)동문.

▲단체상 준우승 : 33회(회장 柳春培), 3위 : 38회(회장 金東均).

보건학박사 동우회

정기 학술대회 열어

보건학박사 동우회(회장 南喆鉉)는 지난 8월 21~22일까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임해수련원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생활환경과 건강」, 「지역사회와 건강」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원광대 金鍾二(92년卒)교수, 건강보험공단 安鍾鬥(04년卒)박사 등이 모두 다섯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들의 논문 16편이 소개됐다. (南)

제1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11월 14일(일) 모교서 개최

제1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단과대학 및 기·과 동창회별로 바둑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든 서울大人이 참여할 수 있는 바둑대회를 바라는 동문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바둑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추억이 담긴 모교 캠퍼스도 둘러보시고,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멋진 대국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4년 11월 14일(日) 09:00~18:00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참가대상 :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 (이하 7급 이상)
◇진 행 : ①단체전(1조 3인) ②개인전(棋力別 6개 이내)
◇신 청 : 2004년 10월 15일까지
서울대동창회 홈페이지 양식 참조 (www.snua.or.kr)
◇참 가 비 :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연 락 처 : 전화 02)702-2233 FAX 02)703-0755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 주관 : (재)한국기원

홈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

10월 17일(일) 모교로 초대합니다

모교 개교기념일(10월 15일)에 즈음하여 제26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7일 거행합니다.

◇일 시 : 2004년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3면에서 계속)

특지장학금 수여

삼양정수공업 張學淳(50년 工大卒)회장이 설립한 「張學淳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삼양정수공업 張明根사장이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吳智賢(석사 2년)양, 朴相哲(석사 2년)군에게 5백57만8천원을 지급했다.

한국기술교류 朴柱鐘(74년 商大卒)회장이 설립한 「朴柱鐘 특지장학금」으로 李 瓚(사회대 기초과정 1년)군이 1백77만2천원을 받았으며, 간호대학동창회 閔銀淑(54년 看護大卒)명예회장이 설립한 「閔銀淑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모교 간호대 金錦順부학장이 간호학과 金美珠(3년)양에게 2백11만4천원을 전달했다.

화학과동창회(회장 張文英)가 설립한 「화학과동창회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화학부 朴仁仙(4년)양이 2백11만4천원, 鄭大永(55년 商大卒)前한주동상 고문이 부인 閔婉基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曺敏(경영학과 1년)군이 1백77만2천원을 받았다.

성지출판 洪尙郁(87년 農大卒)사장이 설립한 「洪尙郁 특지장학금」으로 法大장이 모교 물리학부 金康勳(4년)군에게 1백50만원을 수여했으며, 오미아코리아 鄭昶始(76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사장이 설립한 「鄭昶始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鄭사장은 공대 재학생 羅重錫(응용화학부 3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2백11만3천원을 지급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郭永髮(60년 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郭永髮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郭회장은 모교 의학과 安鎭泳(3년)양에게 3백58만5천원을 전달했으며, 한국우드워드 李海遠(55년 法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李海遠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신입생 朴亨烈(법학부 1년)군이 1백77만2천원을 받았다.

또 明泰鉉(50년 工大卒·관악회 이사)前송원기업 대표가 설립한 「明泰鉉 특지장학금」으로 明이사는 이날 모교 공대 許昌茂(기계항공공학부 2년)군에게 2백31만4천원을 수여했다.

본회 金道昶(47년 法大卒·변호사)고문과 그의 자녀(1녀3남)가 공동명의로 설립한 「牧村 5父子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3남인 무한투자 金性均(86년 經營大卒)사장이 모교 朴노을(법학부 2년)양에게 1백69만7천원을 전했다. 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정형외과 李志鎬(83년 醫大卒)과장이 설립한 「李志鎬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의학과 金修珍(2년)양이 등록금 전액 3백86만6천원, 李相範(57년 法大卒)변호사가 부인 高江錫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相範·高江錫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법학부 梁龍勳(4년)군이 1백57만3천원을 받았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소 朴炯嗣(76년 保大醫卒·관악회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朴炯嗣 특지장학금」은 10월 중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우수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장학금 전달

李元珪(63년 農大卒·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珪 기금장학금」으로 이날 李동문은 모교 재학생 鞠承容(농경제사회학부 박사 1년)군에게 2백12만4천원을 수여했으며,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在一)가 설립한 「齒佛會 기금장학금」을 통해 이날 대리로 참석한 모교 치대 柳東哲(83년 齒大卒)교수가 치의학과 池相日(2년)군에게 1백만원을 수여했다. (表)

동문을 찾아서

대한민국 학술원 金泰吉회장

"분과의 분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

지난 7월 16일 대한민국 학술원은 정기총회를 개최, 제30대 회장에 金泰吉(47년 文理大卒·모교 철학과 명예교수)동문을 선출했다. 이에 金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연구분야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학술원에 대해 소개를.

『우리 나라의 학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술단체들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에 응하거나 건의를 하기도 하고, 정부기관이 위촉하는 학술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 학계에 크게 공헌한 학자들에게 매년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시상합니다. 또 국제적 학술대회를 매년 서울에서 열고 있으며, 춘추로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국내 학술대회도 개최합니다』

－임기 중 역점 사업은.

『현재 우리 학술원의 회원 정원 1백50명은 1988년에 정해진 것이고, 지금의 각 분과 구성은 50년 전의 학술 개념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과 교수의 수는 근래에 폭발적으로 늘었고 언론학이나 생명과학과 같은 새로운 분야는 눈부신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대표 학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자리가 없습니다. 불가불 회원의 총수를 늘이고 분과의 분류도 최근 학문 분류에 맞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자면 행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학술원 회원들 내부도 大我적 견지에서의 협조가 필요하죠』

－최근 일어나는 범죄와 사건들에 대해 윤리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인과 강도, 사기와 횡령 등 이런 반사회적 현상이 범람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나라 전체의 비관적 현실에 있어요. 삶의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흑만이 가득하다고 현실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로 무

의미한 파괴를 일삼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나라의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현실을 만들지 않고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고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문들께 한 말씀.

『졸업을 한 동문과 재학 중인 동문을 막론하고 서울대인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울대인은 이 고마운 혜택에 보답하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와 재계 또는 학계와 예술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저명 인사들만이 서울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문들 가운데도 훌륭한 서울대인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金회장은 건국대·연세대 교수, 철학연구회장, 수필문학진흥회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우산육영회 이사장,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준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법과대학 동창회 丁海昌회장

"젊은 동문들의 참여 확대에 노력"

지난 6월 15일 법과대학 동창회는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동창회장에 丁海昌(60년 法大卒·좋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동문을 선출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丁회장을 만나 동창회 소개와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를.

『1957년 11월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제대 법학과, 서울대 법대 등 3개 동창회가 합동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이래 현재 1천5백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이 입법·행정·사법부를 위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창회는 장학사업,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기념관 건립, 법대 1백년사 발간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법대인상 시상 등 뜻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창회 운영상 문제점은.

『지금까지 선배 회장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큰 문제없이 동창회가 운영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더불어 동창회에도 젊은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를 타개할 방안을 여러 모로 구상중입니다. 일단 서로 만남을 갖고 관계를 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법과대학에 도입 예정인 로스쿨에 대한 견해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오던 문제인데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선뜻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나라 법 전통과 실정에 맞고 법치주의 구현이란 장래의 목표에도 도움이 되도록 후회 없는 결정을 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동창회로서는 어떠한 변화가 오든지 모교의 법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바둑 실력이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두지는 못합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마 3단 정도 입니다. 제가 1997년 한국아마바둑협회를 창립하여 약 5년간 초대 회장으로 봉직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 운영에 대한 계획은.

『동문간의 친목 강화를 위해 동호회 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교 발전기금과 장학사업의 확충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또 불우한 동문을 도울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丁회장은 고등고시 사법·행정 양과를 합격하고 대구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차관·장관, 법무연수원장, 형사정책연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亨〉

서울대를 세계 속의 초일류대학으로 키우려면…

"국립대 법인화·대학 통폐합으로 일본대학 변화"

본보는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예측해 보기 위해 해외 유수대학의 교육정책, 엘리트 교육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미 소개된 중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긴급 좌담

④ 일본의 대학교육

- 朴鍾根(73년 工大卒) 모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동경대
- 李明熙(83년 師大卒)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쓰쿠바대
- 朴喆熙(86년 社會大卒)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前 日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 吳炘泳(87년 社會大卒)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前동경특파원
- 사 회 : 李相禹(61년 法大卒) 한림대 총장·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사 회 :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 일본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대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학교제도, 교육 문화 등 기본 시스템은 일본의 것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본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교육개혁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보면 엘리트양성 보다는 평준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인식 하에 서울대 폐지론도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吳炘泳 : 서울대 폐지론이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교육담당 기자를 하면서 서울대의 폐쇄성을 꽤 느꼈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계에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파워,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다라도 그것이 서울대 폐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대 폐지론을 말하기 앞서 우리 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 되야 한다고 봅니다.

朴喆熙 : 전체적인 평준화 논의를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나라에서 갑자기 평준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조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경쟁력을 높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에 우리 나라는 이념적이고 정파적인 맥락 속에서 평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 즉 서울대가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것이란 생각은 안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기업들도 역시 그들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 그들이 우리 나라를 선도해 나간다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李相禹총장 朴鍾根교수 李明熙교수 朴喆熙교수 吳炘泳차장

日 과거와 달리 변화 수용하는 속도 빨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생존전략으로 인식

朴鍾根 : 입시과열과 관련해 서울대 교직원 중 한 사람으로써 서울대를 중등교육을 컨트롤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특수 대학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서울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 회 : 일전에 고교를 평준화하여 하향평준화 문제를 발생시켰고 2단계로 대학의 평준화를 시도하려는 조짐이 엿보입니다. 누리사업(NURI·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 대학지원 예산 중 상당부분이 누리사업으로 배분돼 경쟁력을 높여야할 연구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李明熙 : 교육에서 평준화정책이 도입된 것은 근대이후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부터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준화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입시과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평준화정책을 시행할 때는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까지 전부 평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립 고등학교의 평준화마저도 실력저하라는 부작용을 나으면서 90년대 후반 들어 재검토하기에 이릅니다.

朴鍾根 : 고등학교는 한때 평준화가 이뤄졌지만 대학교육에 있어 일본은 한번도 경쟁원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은 明治維新이래 관료를 키우는데 고등교육의 목적이 있었고, 1910년대 들어서면서 국립대학이 재정적으로 엘리트양성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같은 사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국립대학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엘리트 양성기관의 대표기관인 대학을 법인화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경쟁의 무대가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살아 남기 힘듭니다.

사 회 : 앞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국립대학의 개혁 내용으로 「국립대 법인화」, 「대학의 재편 통합」이 눈에 띕니다. 국립대의 법인화로 외부 기업체 사장의 대학경영협의회 참여 등 자율책임 경영제가 도입됐고 전국 89개 국립대 중 24개 대학이 통합되어 새로운 12개 대학으로 재편됐습니다.

李明熙 : 일본의 대학교육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국립대학을 통해 충원하려는 시도를 초기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 교육이 변화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가 국립대 한정하지 않고 사립에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COE(Center of Exellence)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박사과정으로 각 대학장이 신청 대표자가 되며 심사기준으로는 ▲학장의 지도 아래 개성적인 장래 연구계획과 강한 실천력이 기대되는가 ▲특색있는 학문분야의 개척에서 독창적·획기적 성과가 기대되는가 등의 항목입니다.

일단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세계 최고수준의 거점형성을 위한 연구자금으로 연간 1억~5억엔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이제는 우수한 연구거점을 엄선해 중점 육성하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변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본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립대에도 기회균등이 사라졌습니다. 국립대 내부에서도 고도의 경쟁을 위한 시스템이 독립법인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교육연구 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도를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6년마다 평가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炘泳 : 국립대 법인화로 요약되는 일본의 교육개혁은 90년대 초 경제거품이 깨진 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경제거품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인재양성에서 미국보다 뒤졌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엘리트를 위한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쟁과 자율원리」로 대학정책이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1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러한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면서 모든 대학에 균등하게 나눠지던 지원금이 서로 차등하게 배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학은 정부의 경쟁원리 도입과 자율성 보장에 대해 어

↗

교육분야와 달리 연구분야 선택·집중 필요

교수채용·학생선발, 대학에 자율권 줘야

느 정도 수긍하면서 이에 맞춰 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이 추진하는 것은 자유를 주고 대신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朴鍾根 : 우리 나라 국립대의 법인화 문제를 거론할 때 서울대가 반대해서 안된 것처럼 보도 되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가 법인화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법인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풀고 나가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지적 재산권은 대학이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 예산권 등은 교육부 속안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직원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기학예산처는 예산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일본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순서를 밟아 하나 하나 위임한다면 서울대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 회 : 일본 대학개혁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가 중점대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대학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 1~2개를 우선 육성하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북경대, 청화대, 복단대를 일차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후 그 다음 대학들을 그 정도로 키우자는 것이죠.

청화대의 경우 교수 한 명을 2백만달러 주고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똑같은 교수 월급의 2백배를 준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 정도 해야 앞으로 살아 나가겠구나 자극 받아서 일본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朴喆熙 : 제가 조교수로 일했던 대학을 예를 들어 일본의 변화, 특히 국제화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조교수로 3년 정도 봉직했던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은 설계만 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본 교육정책가들이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서 보고 전문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돼 20년을 설계하고 시험을 거친 다음에 국립대학으로 독립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국제화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나는 교원의 국제화입니다. 일본의 교수사회에서는 우리와 달리 해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를 중심으로 교원을 구성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괜찮은 학자라면 아무런 차별을 두지 말고 데려오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구성입니다. 이 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한 명 한 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인데, 한해 1백50명 입학생 중 90명이 외국학생입니다. 선발을 할 때도 담당자들이 외국으로 직접 가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의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선발하는 해외 유학생을 보면 중국, 인도, 동남아, 舊소련 체제에서 독립한 나라가 많습니다. 이쪽은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즉 전략적인 국제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와 일어로 진행되며 영어 코스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교양과목의 경우 영어로 가르치자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李翔熙 :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도 국제화의 좋은 예입니다. 오이타현 벳부에 있는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4년전 개교해 현재 67개국에서 1천6백여 명의 외국유학생을 유치, 일본 학생 2천1백명 등 재학생 수가 3천7백여 명에 이르며, 전임교수도 17개국에서 1백13명을 초빙한 신설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경제계 및 지역유지 2백8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학자문위원회 위원들이 2011년까지 39억엔의 장학금, 기부금 출연을 약속했으며 2010년 교육계 세계화와 외국대학 설립 자유화 등 규제완화에 대응해 영어, 일본어 2개 국어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해외 명문대학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 회 : 과거 한·일 양국의 교육을 비교할 때 한국은 너무 빠르게, 일본은 너무 느리게 변화와 개혁이 이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간 고등교육 정책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학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뽑는 절차, 교수 채용기준 등 맞춰야 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교수를 채용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스승이 계시면 교수로 채용해야하고 이럴 경우 국가에서 정식교원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吳炳泳 : 일본이 흔히 통제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80년대 과외망국론이 있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자율이 있었는데 반해 오히려 90년대 들어와 수능이라는 틀 속에 묶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뽑을 수 없는 곳에서 과연 대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朴喆熙 : 국내 대학은 유연성 면에서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교원이나 학생들을 뽑을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문제가 있는 사무직원도·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을 뽑는 문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예산에 있어 항목이 정해진 것은 다른 필요한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日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원의 3분의 1이 실무진이었습니다. 외교정책은 외교관들이, 방위문제는 방위청에 있는 고위급 임원들이, 과학기술은 미츠비시 등 사설 기관의 연구원들이 와서 1~2년동안 교육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물론 학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 일하는 시스템이 돼 있었죠.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고 또 일반 교수들도 긴장을 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생들 앞에서 나설 수가 없으니까요.

사 회 : 끝으로 일본의 엘리트 교육정책 가운데 우리가 수용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吳炳泳 :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놀란 것은 일본이 절차가 많고 변화가 늦는 나라인데 한번 정하면 참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보다 교육개혁을 5~6년 늦게 시작해 지금은 「로스쿨제도」도 도입했고 「국립대 법인화」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들이 옳고 그르냐는 것을 논외로 놓더라도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나간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지만 현재 일본은 10명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가는 시대에서 벗어나 10명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인재양성의 컨셉을 사회가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대 폐지론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로 「질 시론」을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경우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가 내년부터 4개의 도립대학을 합쳐서 하나의 도립대학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는 도쿄 도지사도 열심히 나서고 있지만 다른 3개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의 지방화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일본의 지방대학은 지방기업들이 앞장서 돈을 대주고 그 주민들이 기금을 만들어 인재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각 도가 돈을 내고, 운영은 일반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는 병설대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를 다른 데 뺏기지 말자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작은데서부터 우리가 기른 인재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일본의 생각입니다.

전 사실 지난 7월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왔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우리보다 뒤쳐졌던 분야가 교육분야였는데, 지난 3~4년 사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뿐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갈데가 없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朴鍾根 :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우리 나라도 교육과 연구분야를 나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인프라가 중요한 교육분야의 경우 평등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연구분야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李翔熙 : 일본교육의 특징이 개인의 자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순에 의해 서열 1위 대학부터 가기보다는 개인적성에 맞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통교육 단계에서부터 강조해 자기가 즐겁게 일하고 공부하여 자아실현을 중요가치로 놓는 것이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하면 즐겁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지방 대학출신 회사원이 노벨화학상도 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 번째로 일본의 대학원 교육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학생을 길러냈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대학원의 경우 학생지도 부문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학원의 학생들에게는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朴喆熙 : 연구분야에 있어서 투명성 있는 집중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의 COE프로그램이 정확하게 그것인데, 국내 대학원을 보면 연구 지원금의 투명성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면 누가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대학개혁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요즘 일본보다 한국이 변화에 대한 수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히 국내에서도 대학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정리= 金南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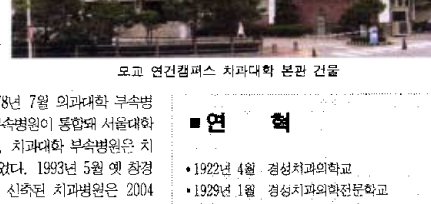
치과대학 뿌리를 찾아서 치과대학 동창회

내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키로

치과의사와 치의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과 치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 그리고 악구강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22년 4월 1일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정규 치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치과의학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29년 1월 조선총독부로부터 4년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교사를 신축했으며, 1945년 11월 1일 경성치과대학으로 개교함으로써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에서의 정규 치과교육이 시작됐다. 경성치과대학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돼 195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1959년 4월 치의예과, 1960년 4월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이 신설됐다.

이후 치과대학은 1969년 12월 소공동 교사에서 연건캠퍼스로 이전, 치과생체재료연구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학제간 공동연구와 산학협동연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치과생체재료연구동을 2003년 6월 개관했다.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대학 본관 건물

부속기관으로는 경성치과의학교 시절부터 환자 진료와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치과병원이 있었으나 1978년 7월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통합돼 서울대학교병원이 됐으며,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치과진료부로 바뀌었다. 1993년 5월 옛 창경초등학교 부지에 신축된 치과병원은 2004년 6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으로 다시 분립됐다.

그밖에 1946년 경성치과의학교 도서관을 인수해 치의학도서실로 발족된 치의학도서관은 1975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의학계 분관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995년 2월 치의학도서관이 다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인가되어 세계적인 치의학전문 도서관으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1980년 4월 치과대학 부설 치학연구소가 설립됐으며, 2001년 9월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로 바뀌었다.

1994년 3월 치과대학 발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육연구재단을 설립, 매년 기금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4년 8월 서적, 사진, 의료기구 등 우리 나라의 치과 역사자료를 수집해 치의학박물관을 개관했으며, 1999년 1월 설립한 치과대학 부속 치의학교육연수원이 2001년 9월 서울대학교 치의학교육연수원으로 승격됐다.

앞으로 치과대학은 2005학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2003년부터 치의예과를 모집하고 있지 않으며, 2005년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치의학 전문 석사과정 9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의학 교육기본과정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통합교육, 특성화 선택교과목 신설, 치의학 전문 석사학위에 부합하는 연구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조기 노출, sub-intern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계획·시행, 평가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실을 설치했으며, DDS-PhD의 복합학위과정을 신설해 치의학 기본교육 과정과 학술박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기초치의학을 전공하는 치의학자를 양성, 치의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글 : 崔珣哲(79년 齒大卒)모교 치대 학생부학장

■연 혁

- 1922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
- 1929년 1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
- 1952년 4월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59년 1월 치의예과 신설
- 1960년 4월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신설
- 1969년 12월 소공동 교사에서 연건캠퍼스로 이전
- 1977년 7월 구 약학대학 건물을 치대 기초관으로 인수
- 1978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개설
- 1980년 4월 치학연구소 설치
- 1993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신축
- 1995년 5월 치의학도서관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개관
- 1997년 2월 치학연구소 법정화
- 1999년 1월 치의학교육연수원 설립
- 2000년 5월 치의학박물관 설립
- 2003년 6월 치과생체재료연구동 개관

장학·건립기금 모금 등 모교 사랑 실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시절의 동창회 명칭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우회 였다. 이후 194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로 재탄생했다. 1949년 12월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국립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바뀌어짐에 따라 동창회 명칭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로 개명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63년 10월 오늘날의 동창회 회칙이 공식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정회원은 치과대학 전신인 「경성치과의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회원은 약 5천5백여 명에 이른다.

소공동 옛 교사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은 1970년 치과대학이 연건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현재 치과대학 내에 두고 있으며, 서울지부를 비롯해 전국에 13개의 시·도 지부, 해외지부인 미주지부와 일본지부 그리고 1회부터 2004년 졸업생인 58회까지 각 기별 동기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吳興祚(61년卒)동문은 현재 서울대 재미동창회장을 맡으며 맹활약 중이다.

치과대학 동창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상임부회장 6인 포함), 상임이사인 총무·재무·학술·기획·공보·정보총무 1인, 협동총무 3인 그리고 동창회 사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명예회장 1인과 감사 3인이 활동하고 있다.

모교 지원사업을 통해 1970년 이후 동창회 장학기금을 마련, 현재 1·2학기 각 학년별로 1명씩 총 4명의 재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21세기를 맞이해 池嘉澤 전임 회장의 출연수범과 전 동문들의 참여로 3억원의 기금을 모금, 치과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새천년 기념 조형물을 치과대학 정문 앞 운동장에 건립했다.

2003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필자

치과대학 동창회는 매년 동문들이 찍은 작품사진을 공모하여 당선작품이 실린 달력을 제작해 국내는 물론 해외 동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계간으로 타블로이드판 동창회보를 발행, 동문 동정과 경조사 등 각 기별 동문들의 최근 근황과 동창회 및 모교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 매년 친목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참여 열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동창회 홈페이지(sddongchang.co.kr)를 오픈하면서 동문간에 더욱 신속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으며, 선후배 그리고 동기간의 더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명부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한편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와 진료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문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모교를 빛낸 동문을 선정, 그 뜻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상」을 제정해 정기총회에서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02년 세계치과의사연맹 尹興烈(65년卒)회장과 美UCLA치과대학 차鶴喜(68년卒)학장, 2003년 美MEAW 金水昊(49년卒)연구회장과 모교 閔炳一(56년卒)명예교수, 2004년 故 朴明鎭동문, 모교 李水玉(41년卒)명예교수와 池嘉澤 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수상했다.

앞으로도 동창회와 모교를 위한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글 : 梁源植(61년 齒大卒·모교 치대 명예교수)회장

■연 혁

- 1949년 12월 동창회 본격적인 업무 시작
- 1963년 10월 회칙 제정
- 1969년 동창회보 창간호 발간 및 배포
- 1970년 5월 장학기금 모금 시작
- 1975년 2월 매학기 각 학년별로 1명씩 전액장학금 지급 시작
- 1980년 6월 치대 도서관 재건기금 출연
- 1983년 2월 동창회 신입회원(당해연도 졸업생)에게 동창회패 제작, 배포
- 1989년 7월 치대 강당 의자 기증
- 1995년 8월 제1회 친목 골프대회 개최
- 2000년 10월 모교 방문의 날 행사 및 새천년 기념 조형물 건립
- 2002년 4월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상 시상
- 2003년 2월 홈페이지 오픈
- 2003년 3월 획기적으로 개편된 회원명부 발간, 배포
- 2003년 7월 동창회보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 배포
- 2003년 10월 개교 80주년 기념 제1회 치과대학 동창회 학술대회 개최
- 2004년 2월 2004년도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동문기자 취재수첩

진정한 올림픽정신은 어디로?

지난 시드니올림픽에 적도기니 출신 무삼바니라는 수영선수가 있었다. 트림크스타일의 코믹한 수영복도 인기였지만 수영 1백미터 자유형에서 마치 빠져죽을 것 같은 개헤엄을 선보여 전세계 시청자들을 웃기고 말았다. 그 무삼바니는 여권사진 미제출이라는 황당정상의 실수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고 그 대신 적도기니에서는 남자육상 1천5백미터에 카리차올로라는 아마추어 선수를 파견했다. 당연히 그의 성적도 선두에 무려 25초 뒤진 엄청난 것이었고, 스타다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엄청난 환호를 보냈다. 제2의 무삼바니도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진정한 아마추어리즘이라며 극찬을 한다. 기록이 엄망이면 어떠냐? 참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무삼바니 해프닝은 「참가에 의의가 있는」 올림픽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조직위가 흥행을 위해 벌인 일종의 이벤트였던 것이다. 그가 정말 올림픽을 위해 연습해왔다면 기록이 저조할망정 1백미터도 못 가 허덕대지 않았을 뿐더러 비싼 비행기표 살 돈을 조금만 아껴 그럴듯한 수영복과 수경을 장만했을 터이다. 카리차올로도 그렇다.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육상 3천미터 장애물을 주종목 삼아 운동을 병행해온 유학생에 불과하지만, 아테네올림픽 조직위는 공전의 히트를 쳤던 무삼바니 해프닝을 이번 올림픽에도 재연하고자 또다시 적도기니를 끌어들였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남자육상 1백미터가 하필이면 새벽 5시에 했을까? 새벽 5시면 아테네 현지에서도 밤 11시로 아주 늦은 시간인데. 대답은 간단하다. 가장 많은 올림픽중계권료를 낸 미국 시청자들이 보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최근 올림픽이 극도로 상업화됐다면서 종목의 재조정을 통해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올림픽종목 조정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그 종목이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관중이 찾았으며 시청률은 얼마이며 수억원의 캐릭터를 벌어들일 스타를 몇이나 키워냈는지… 전부 돈 냄새가 난다.

그나마 올림픽의 순수성을 자켜주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감동적인 모습들이다. 중국을 꺾고 탁구 금메달을 따낸 유승민과 우리 선수끼리의 결승대결이 벌어졌던 배드민턴, 양궁이 그렇고 유도가 그렇다. 평상시에는 프로스포츠의 그늘에 가려있었지만 올림픽에서만큼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을 제치고 온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 불거져 나온 판정시비는 4년을 기다려온 선수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고의적인 실수로 양태영의 금메달을 미국의 폴햄에게 줘버린 체조경기장은 마지막날까지도 관중들의 야유로 얼룩졌다. 시드니올림판 2관왕을 차지했던 네모프는 그의 깔끔한 기술에 비해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고 관중들은 이를 비난했다. 더 웃기는 것은 관중들의 야유소리가 거세지자 심판진들이 즉석에서 그의 점수를 상향조정했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관중이 야유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내린 평점을 바꿀 정도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의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는 돈벌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OC의 올림픽 성공여부의 잣대도 얼마나 흑자를 올렸느냐는 것이다. 방송사는 올림픽방송의 시청률과 그에 따른 광고판매에 사활을 걸고, 선수들을 키워낸 기업들도 메달리스트를 기업홍보에 연계할 방안에 골몰한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도 돈을 피해 가진 못한다. 각 메달에 걸린 막대한 포상금은 그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다고 모두들의 머릿속에 돈만 가득찬 것은 아닐 것이다. 승리의 순간 또 패배의 순간 선수가 느끼는 감정은 이물질들이 다 제외된 순수한 것이며, 올림픽 정신에 가장 근접한 것이리라 믿는다. 관중과 시청자도 마찬가지다. 경기결과에 엇갈리는 희비의 감정은 선수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올림픽을 만들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판 판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얼마의 돈이 들건 또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든 상관없다. 다만 요즘 올림픽은 경기장 밖을 흐르고 있는 돈의 물결이 너무 거대해 내부까지 스며들고 올림픽의 공정성과 순수성까지 침식하는 것 같아 보는 이를 우울하게 만든다.

裵 璇 瀅
(96년 人文大卒)
MBC 스포츠취재부 기자

2004년, 그 해 여름은 끔찍했네

장마철 굵은 빗줄기가 내리치던 7월 17일 오후. 경찰팀 선배와 함께 후배 결혼식을 찾았다가 선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식 브리핑이 있으니 늦지 않게 출근하라는 것이다.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이라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서울 강남과 강북의 네 집에서 80대 할머니 등 8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엽기적인 사건. 경찰도 단순히 동일범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선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했다. 「그 용의자가 죽인 사람이 모두 스무 명이 넘는다는데…」 연쇄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용의자라는 직감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앞으로 접할 끔찍한 사건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건기자로서 한번 겪어볼 직한 「大棒」와 마주쳤다는 직업 의식 탓이었는지는 확신치 않다.

다음날 아침 연합뉴스 경찰팀 전원이 역할을 나눠 세기의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유층 노인들 외에 11명의 출장마사지 여성들이 잔혹하게 토막살해돼 암매장됐다는 경찰 브리핑을 시점으로 각 언론사 사건기자들은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진을 치고 열띤 취재 경쟁에 들어갔다.

현장검증과 유의 거주지, 유가 졸업한 학교, 피해자 가족 등 취재 가능한 모든 대상에 대해 전 언론사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경찰이 유의 신병을 꼭꼭 숨겨두고 조사 현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바람에 각 언론사는 피해자 주변 인물 등 외곽 취재에 의존해야 했고 그럴수록 기사는 경찰과 유의 입만 좇는 형국이 돼 버렸다.

그런데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한동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팩트(事實·fact)로만 승부해야 될 기사인데, 그 기사를 쓰는 필자 자신이 기사의 내용을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게 토막내는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10여 차례나 계속한 엽기적인 사건이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차라리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의 시나리오라면 모를까.

趙 城 賢
(02년 人文大卒)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유영철이 1주일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사건기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기자들의 여름은 유씨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8월 1일 밤, 이번에는 폭행용의자를 쫓는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공권력이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경관살해범 이학만은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1주일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동료를 잃은 슬픔을 달래며 이학만 검거에 전력을 다했고 기자들도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찜통더위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이학만은 1주일만에 검거됐고 유영철 만큼의 후폭풍은 없었다. 자연히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져 갔다. 열대야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고 낮 최고 기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올 여름 「10년만의 무더위」가 기승을 떨쳤지만 잇단 강력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어쨌든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유영철 사건이 처음 공개된 날도, 이학만이 경관을 찌르고 달아난 날도, 경찰에 붙잡힌 날도 공교롭게 모두 일요일이었다. 경찰과 사건기자들은 일요일도 방심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였을까. 어쩌 이 글을 쓰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일요일이기 때문일까.

간혹 유영철 사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곤 한다. 경찰 브리핑에는 유영철이 범행에 사용했던 5kg이 넘는 휴대용 해머가 공개됐다. 유영철이 경찰행세를 하며 사용한 위조 신분증과 수갑 등과 함께 공개된 증거물이었는데 그 해머 손잡이에 적힌 문구가 아직도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Shockless Noiseless Reboundless」

모쪼록 우리 사회에 유영철·이학만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무 충격 없이, 조용히, 별다른 반향 없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배경은 무엇인가?

"패권주의적 발상 … 역사를 국경문제와 연계 말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중 수교 12주년 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도를 하지 않겠으며, 내년 가을학기 초·중·고교 교과서에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구두합의를 우리 정부와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고구려사 해법 마련의 첫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고구려사 왜곡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등을 주중국 대사를 지낸 鄭鍾旭(65년 文理大卒)아주대 석좌교수와 본보 논설위원인 朴勝俊(78년 人文大卒)조선일보 중국 전문기자의 대담을 통해 풀어봤다.

특별 대담

鄭鍾旭 아주대 석좌교수
朴勝俊 조선일보 중국 전문기자

朴勝俊 : 지난 8월 24일 방한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이 고구려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5개항의 구두양해 사항에 합의하면서 본국의 훈령을 들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고구려사와 관련된 전문을 보내면 중국에서 누가 검토를 하게 되나요. 그것을 검토할 사람이 우다웨이 부부장 아닌가요?

鄭鍾旭 : 우다웨이 부부장이 실무책임자이지만 그 위에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 리톄잉(李鐵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국사회과학원장 등이 있겠죠. 북한문제, 통일한국문제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정책과도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부장 선에서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朴勝俊 : 우다웨이 부부장은 가을학기 교과서에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旭 : 중국이 동북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대형 학술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후된 옛 만주지방의 경제건설이라는 측면이죠. 이것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는 역사정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邊疆史地硏究中心)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중앙정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인데, 단순히 지방정부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朴勝俊 : 몇 년 전에 SBS 취재진이 랴오닝성(遼寧省) 환인(桓因)지역 등을 취재하려다 현지 공안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안내를 맡았던 조선족 가이드만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는데, 그 가이드는 그곳 공안들로부터 「역사와 국경에 관한 문제는 지방정부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기록들이 도착하자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국경에 관한 문제는 명백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鄭鍾旭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죠. 아시겠지만 중국 역사에서 많은 왕조가 영토분제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것이 55개 소수민족과 관련돼 있어서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행동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중국 내의 소위 민족주의적 정서의 확산입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4세대 지도층은 1·2·3세대와 비교해서 민족주의적인 철학, 가치관이 대단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중국 4세대 지도자들이 상당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어떤 급변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중국에게는 커다란 안보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김일성 사망을 전후해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보정세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급변사태가 나서 북한정권이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중국이 소위 중조변계조약(中朝疆界條約)에 의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대비—중국의 포석
민족뿌리 훼손행위 절대 안돼

朴勝俊 : 동북공정의 프로젝트 설명서를 살펴보면 간도(間島)문제도 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근대에 들어와서 한반도와 관련해서 맺은 국경협약의 첫 번째가 1909년 청나라가 일본과 맺은 간도협약이고, 그 다음이 1962년 북한과 맺은 중조변계조약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거나 통일한국이 탄생할 경우, 한국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한국이 고구려 유적이 산재해 있는 서(西)간도 일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국경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 관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의 붕괴에 대해 그들은 10년 이내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 현재대로라면 10년 정도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길러서 40대부터 국가업무의 결재를 하게 했는데, 지금 김정일은 후계자를 기른다는 흔적이 없는 데다가, 현재의 건강상태라면 10년 이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군부가 물러다니는 권력을 쥐게 될텐데 그때 북한군부가 북경으로 연락을 취할지, 아니면 서울로 연락할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과 타협을 할지가 주목된다는 거죠.

아무튼 북한정권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자동 개입조항이 포함돼 있는 중조우호조약이 적용될 것이고, 북한이 붕괴되면 결국 북한지역을 놓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의 근거로써 고구려사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鄭鍾旭 :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된 게 1974년 김일성이 62세 때였습니다. 지금 김정일이 62세이니 후계자 선정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김정남, 김정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약문제와 관련해서 간도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사이에 체결한 조약에 우리가 구속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국경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검토해 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직적인 검토나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불거진 고구려사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역사적인 부분에 애매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학술차원에서 연구하고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이고,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니까 고구려가 과거에 지배했던 영토도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중화사상(中華思想) 내지는 패권주의적(覇權主義的) 발상은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朴勝俊 : 지난 8월 27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盧武鉉대통령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른 신속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통치권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鄭鍾旭 : 양국의 현안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을 봐야 한·중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되게 되면 고구려사 문제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한·중 관계에 대한 전술적인 평가와 기대 등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朴勝俊 : 최근에 중국 외교부가 「한·중·일 공조」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에 첫 한·중·일 미디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중·일 협력체계를 한·미·일 체제에 대한 대항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 외교부의 한·중·일 공조와는 모순이 되는 것이죠.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잘못해서 한국을 잃으면 한·중·일 협력체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동북공정에 관련된 문제는 중국 정부 내에서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鄭鍾旭 :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공산당 1당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또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와 다른 부처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구려사 문제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구인 외사영도소조(外事領導小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면 분명한 원칙을 세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관계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냉정한 대응·분명한 입장으로 학술적 접근해야"

朴勝俊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공정과 함께 고대사 문명을 확장하는 이른바 탐원공정(探源工程)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년이던 중화문명 역사를 5천년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최고 1만년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데.

鄭鍾旭 : 정확히 어떤 근거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역사를 시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확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중화사상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중국이 정치적, 대외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 정서에 따라 학술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朴勝俊 : 중국은 신화(神話)에 등장하는 신농(神農)씨의 종상을 세우는 등 전설 속의 인물을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하가 중화문명의 근거지가 아니고 양자강 유역으로 옮겨가야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화시대까지 역사를 끌어올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점점 그 거대한 규모와 숨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鄭鍾旭 : 민족주의는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의 시기에는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닫힌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면 중국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아편전쟁(阿片戰爭),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 등을 겪어온 중국의 현대사는 좌절과 한(恨)의 역사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소위 부국강병을 꿈꾸며 옛날의 한(恨)까지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신화를 역사로 끌어오거나 중화사상·모화사상(慕華思想)을 역사적인 현실로 만들려는 우스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朴勝俊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북한이 조용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1909년에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국경을 확정한 청일 간도협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1962년에 중국과 중조변계조약을 체결한 책임 때문인지, 아니면 저우언라이(周恩來), 쑨원(孫文), 마오쩌둥(毛澤東) 같은 사람들의 동북역사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가만히 있는 것인지요.

鄭鍾旭 석좌교수

朴勝俊 전문기자

영토분쟁, 韓中 협력의 걸림돌
남북 손잡고 체계적 대처 필요

鄭鍾旭 : 북한이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못 느껴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 중국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지지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남북공조를 펼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朴勝俊 : 중국 외교부 사람들은 이미 북한을 「칸부치(看不起)」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 안쓰다」는 거죠. 북한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말갈족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다웨이 부부장이 발해를 구성한 민족이 말갈족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에 사는 자기네들이 고구려의 후예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다루는데 왜 한국이 관여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鄭鍾旭 : 과거에 고구려가 지배했던 영토가 중국의 영토라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고구려가 한국 역사이고, 고구려인들이 우리 조상이기에 만주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실과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와는 연계를 짓지 말아야죠.

朴勝俊 : 최근에 미국의 Mosher라는 학자가 쓴 책(Hegemon :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에서 패권주의는 중국의 발명품이고, 패권이라는 말 자체도 중국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鄭鍾旭 : 중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소련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패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반(反)패권 외교입니다. 다시 말해 소련이나 미국이 패권국가이고, 특히 냉전질서의 와해 이후에는 「유일한 一超」 즉 「하나 뿐인 초강대국」인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아시아에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문화적·정치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고, 동북아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소위 화평굴기(和平崛起)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패권주의와는 전혀 다른 반대개념인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가 패권주의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勝俊 :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추구해온 반(反)패권주의적 외교와는 배치(背馳)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당착(自家撞着)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서울예술대학 韓冲完교수

모터바이크 타는 재즈피아니스트

"자녀들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차카차카~ 꼬불꼬불 올챙이가~ 차카차카~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지난 8월 7일부터 22일까지 정동극장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 찌지는 재즈콘서트」 현장. 죽석에서 나눠준 쉐이커를 흔들며 올챙이송을 목청껏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올챙이송을 재즈로 편곡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韓冲完(86년 農大卒)교수.

韓동문은 산울림의 金炳完(75년 農大卒)동문, SM엔터테이먼트 李秀滿(76년 農大卒)대표와 함께 「農大 음악인」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재즈피아니스트이다. 10년 동안 4장의 음반을 발표했고 그룹사운드 「봄·여름·가을·겨울」, 가수 양희은의 「찔레꽃 피면」의 앨범 제작 및 세션에도 참가, 재즈계뿐 아니라 대중음악계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韓동문은 모터바이크 애호가이기도 하다.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산악용 모터바이크도 갖춰 취미활동도 하고 있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춥기는 한데, 그것보다 재미가 더 있으니까 타는 것』이라며 모터바이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모터바이크를 타다가 사고 난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특히 비포장 길과 내리막길에서 수도 없이 넘어졌다고. 그런데 그의 말이 걸작이다. 『넘어지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칠 일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우면 못 타죠.』

농학화을 전공한 그가 음악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뭘까?

『그 당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간판만 보고 들어갔던 거죠.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심각하게 적성을 생각해 봤는데, 꾸준히 취미로 해왔던 피아노 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3년 전에 이혼한 韓동문은 서울예술대학과 가까운 안산 본오동에서 홀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다. 연주자와 교수로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바로 집으로 향한다.

자녀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키고 있냐는 질문에 부별히 하는 것은 없단다.

『작은방에 피아노가 있긴 한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악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음악을 자주 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들은 음악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에 남아 있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녀들에게 억지로 악기를 가르치지 말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세요.』

Noblesse Oblige

법무법인 로고스 文興洙변호사

법대 75학번 가운데는 유명인들이 많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康錫實동문,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오른 金英毓동문, 장애인 운동의 대부 朴殷洙동문, 사법개혁의 전도사 文興洙(79년卒)동문 등.

이 가운데 이번 호에 소개하는 文興洙동문은 지난 88년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시작으로 사법부의 인사제도, 판결 절차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일약 「사법개혁의 전도사」로 떠오른 인물.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에 두발 벗고 나섰다.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책, 음악, 영화를 공유하는 것. 이를 위해 文동문은 지우국제 특허법인 대표인 趙鉉鎬변리사와 함께 지난 7월 8일 「좋은 미디어 나누기 운동본부(goodmedia.or.kr)」를 창립했다.

『법원 내부의 문제를 지적해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 의식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좋은 미디어를 통해 의식수준을 높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첫 모임에서 5백여 명의 회원이 모여 「간디 자서전」, 「나무를 심는 사람」 등 다섯 권을 좋은 책으로 선정했으며, 이 책들을 읽고 6개월 뒤에 모이기로 약속했다.

이 단체의 활동 중에 불우이웃 지원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바로 구치소, 교도소, 고아원 등에 「날마다 함박웃음을 웃자」라는 책을 선물하는 등 좋은 책과 음반을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미디어를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文동문은 판사 재직 시에도 매월 군 교도소와 구치소에 다니며 음식을 제공하거나 악단을 초청해 위문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물론 책 보내는 일도 계속 했던 일 가운데 하나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다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법관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 현실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다. 지금은 「로타리 클럽」에서 봉사도 하며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운동은 단지 돈구름 잡는 듯한 정신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참된 소원을 빨리 달성하는 길을 제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南)

「좋은 미디어 나누기 운동본부」 발족

"좋은 책·음반 이웃과 함께 즐겨"

서울대 가족 宋炳來 前송광전기 대표

장녀·장남·두 사위도 공학도의 길 걸어

"사회 위해 보람된 일 해주길 바랄 뿐"

우리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경제발전의 주역들로 활약한 기술자들과 공학도들. 당시의 「공학도」 대부분은 나라 재건을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 애국자들이었다.

여기 경기도 파주에서 부인 朴喜順(64년 家政大卒·前무학여고 가정교사)동문과 함께 초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宋炳來(61년 工大卒·前송광전기 대표)동문 역시 30여 년간 현대건설 기술자,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대표로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헌신해왔다.

『원래 제 꿈이 철학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개인의 작은 꿈보다는 뭔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주변의 권유로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남만과는 거리가 먼 학창시절이 심말스럽기도 했지만, 4학년 때 현대건설 1기로 입사하면서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작업들을 맡다 보니 재미가 붙더군요.』

그의 자녀(3녀2남) 중 공대를 졸업한 장녀 宋恩智(88년 工大卒·美콜로라도주립대 Computer Science 박사과정)동문과 장남 宋尙憲(94년 工大卒·美미시간대 Aerospace Engineering 박사과정)동문을 비롯, 맏사위 金漢鎰(88년 工大卒·제주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동문과 셋째 사위 劉政勳(89년 工大卒·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동문은 모두 후학양성에 헌신하고 있거나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非기술자」들이다.

차녀 宋弘智(00년 保大院卒·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모교 의대 박사과정)동문과 둘째 사위 姜載憲(89년 醫大卒·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비만센터 소장)동문 역시 교수이자 의사로서 맹활약 중이라고.

『제 꿈을 자녀들이 대신해서 이뤄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외 한번 시킨 적이 없는데, 아내가 어릴 적부터 기초교육을 탄탄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준 덕분에 지금도 자녀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宋恩智·金漢鎰·姜載憲·宋弘智, 한 명 건너 劉政勳·宋尙憲·宋炳來·朴喜順·宋邦憲동문

宋炳來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인
朴喜順(64년 家政大卒)
장녀
宋恩智(88년 工大卒)
차녀
宋弘智(00년 保大院卒)
장남
宋尙憲(94년 工大卒)
차남
宋邦憲(01년 人文大卒)
사위
金漢鎰(88년 工大卒)
姜載憲(89년 醫大卒)
劉政勳(89년 工大卒)

宋동문을 닮아서일까. 차남 宋邦憲(01년 人文大卒·현대카드 TaskForce팀)동문도 철학이 좋아 소신껏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학창시절부터 연마해온 검도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邦憲이는 아직도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나 다름없는 세 사위들이 邦憲이에게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있죠.』

IBM코리아를 다니다 남편(金漢鎰동문)이 제주대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장녀 宋恩智동문은 이후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 미국에서 Teaching Assistant 겸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모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91년 컴퓨터공학과를 다시 졸업해 학사학위가 두 개라고.

어릴 적부터 만지고 고치는데 손재주가 뛰어났던 장남 宋尙憲동문 역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5년간 활약하다 잠시 휴직하고 현재 매형인 劉政勳동문이 박사학위를 받은 美미시간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차녀 宋弘智동문도 우연찮게(?)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교수로 활동하면서 모교 의대에서 예방의학분야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각종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 또 비만 관련 특집 방송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기도 한 남편 姜載憲동문은 뛰어난 입담과 재치로 비만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분야도 같다 보니 차녀 내외는 각종 세미나를 비롯한 저서 활동도 서로 코치해주며,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을 담당하는 주치의로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다고.

현대건설 재직시절에 전국의 원자력·화력발전소, 공장 건설의 전기공사 기술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宋炳來동문은 송광전기 대표시절에도 조선일보, KBS 본관 등의 주요 전기공사를 담당하며 우수한 건설 협력업체로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10년 가까이 현장근무의 수당 전액을 기능공들에게 나눠주고, 그를 도와줬던 많은 지인들, 고향 후배들을 불러모아 송광전기를 설립할 정도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다지 풍요롭게 자녀온 세월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하루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부인의 희생과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아내가 여러 면에서 저보다 낫지요. 전남 여중고동창회장을 역임한 아내는 지금까지도 동창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제가 기업대표로 있을 당시 가정경제는 모두 아내 몫이었어요. 아제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저와 함께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평온하게 지내는 생활에 행복해하는걸 보니, 삶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잘 자라준 자녀들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 보람된 일을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表)

2천1백10명에 후기 학위수여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거행돼 학사 1천20명, 석사 7백9명, 박사 3백81명 등 모두 2천1백10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공과대학은 27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1983년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하던 이른바 군「녹화사업」에 투입됐다가 고문 등으로 견디다 못해 자살한 故한희철 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당시 한씨는 기계설계학과 4학년에 휴학중이었으며, 모교가 망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29만4천6백34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졸업	총 회 원
인 문 대 학	101	9,265
사회과학대학	128	11,931
자연과학대학	91	9,150
생활과학대학	29	3,472
간 호 대 학	–	3,106
경 영 대 학	51	5,594
공 과 대 학	281	37,094
농업생명대학	80	18,929
문리과 대학	–	9,731
미 술 대 학	24	4,521
법 과 대 학	84	14,746
사 범 대 학	118	23,723
상 과 대 학	–	6,723
수의과 대학	1	1,998
약 학 대 학	1	5,718
음 악 대 학	28	6,604
의 과 대 학	3	10,263
치 과 대 학	–	5,592
대 학 원	999	70,441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853
국제대학원	16	70
보건대학원	32	2,793
사범대학원	–	506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20	3,929
환경대학원	23	2,000
소 계	2,110	269,519
준 회 원		13,338
(단 기 과 정)	889	11,777
총 계	2,999	294,534

趙東一교수 등 14명 정년퇴임

지난 8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모교 鄭雲燮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4명의 교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趙東一(국어국문학)교수, 金世源(경제학)교수, 宋丙洛(경제학)교수, 朴學達(산업공학)교수, 韓松華(전기컴퓨터공학)교수, 白忠鉉(법학)교수, 金光洙(역사교육)교수, 蔡禹基(화학교육)교수, 李宗郁(의학)교수, 權勝春(치의학)교수, 金鍾皓(치의학)교수, 朴兌源(치의학)교수, 李善炯(치의학)교수, 張翼泰(치의학)교수.

모교 소식

동경대「棋클럽」과 교류전서

모교 바둑부 우승 차지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모교 바둑부(회장 정은석·기계항공공학부 2년)와 일본 동경대 바둑 동아리인 「棋클럽」의 정기 교류전이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2회의실에서 모교 및 동경대 관계자와 일반인 등 4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는 1977년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8월 양교를 오가며 열고 있으며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교류전은 양교에서 각각 10명씩 출전해 1대 1로 치러졌으며 가장 승자가 많은 모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양교는 이 행사를 통해 경기보다 친선을 주 목적으로 서로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동안 이어온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교 병원

평양에 의료협력센터 설립

모교 병원(원장 成相哲)은 지난 8월 9일 나눔인터내셔날(대표 이윤상)과 함께 북한 평양시내 1천평의 부지에 「평양의료협력센터」를 설립키로 조선의학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양의료협력센터 설립은 지난 5월 모교 병원과 조선의학협회가 공동 체결한 의료기술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측은 평양 시내에 1천평의 부지를 제공키로 했으며 남측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모교 병원 金熙重(80년 醫大卒·정형외과 교수)홍보실장과 이윤상 대표 등은 지난 7월 24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의학협회 김경애 부회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金熙重실장은 『올해 안으로 평양의료협력센터 설립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건물의 규모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건물공사에 들어가면 의료장비관리동을 우선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교 야구부

1무 199패만에 첫 승 올려

대한야구협회 사진제공

모교 야구부가 지난 9월 1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2004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 B조 예선 광주 송원대와의 경기에서 선발투수 박진수(체육교육과 4년)군이 9이닝 동안 1백55개의 공을 던져 2대 0으로 참담 28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승을 거뒀다.

교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구성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돼 그동안 성적이 저조했던 모교 야구부는 1977년 팀 창단 이후 무려 28년 동안 1무 1백99패의 참담한 성적 끝에 기적 같은 첫 승을 일궈내 야구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지난해 대패이징 대와의 친선경기에서 모교 야구부가 승리한 적이 있으나 공식대회 승리는 아니었다.

2002년부터 야구부를 지도해온 卓正根(90년 師大卒·경운학교 체육교사)감독은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꿈이었던 1승을 해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 승리가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라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는 모교 체육지원 기금으로 지난 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럭비부 지원을 추가했다.

신임 대학원장에 철학과 李泰秀교수

지난 9월 1일 대학원장에 모교 인문대학 철학과 李泰秀(사진)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李원장은 1967년 모교 문리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괴팅겐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모교 교무처장·인문대학장,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수의학 黃禹錫교수 첫 석좌교수에 임명

지난 9월 1일 모교 수의학과 석좌교수에 黃禹錫(77년 醫大卒·사진)교수가 임명됐다. 이는 모교 설립 이후 최초로 석좌교수에 임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모교는 이 제도를 98년부터 도입했지만 정작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黃교수는 『이번 석좌교수 임명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예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책임감 또한 무겁다』며 『앞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생명과학 연구에 신기원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석좌교수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亨)

건강을 지킵시다

당뇨병, 면역력 회복이 중요

崔 康 珍
(90년 經營大卒)
온누리한의원장

당뇨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며, 식습관, 생활습관과 밀접한 문명병이다. 「삶의 질」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당뇨는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합병증 때문. 그래서 초기당뇨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중풍, 고혈압, 신부전, 동맥경화증, 족부괴저, 발기부전, 시력상실 등의 병발증으로 이어진다.

또 피로, 손발저림, 체중감소, 시력저하, 수족냉증, 화끈거림, 가려움증, 월경불순, 치주염, 성기능장애 등이 있다면 이미 당뇨인 경우가 많다. 쇠약감, 발한과다, 손발 끝의 통증 등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당뇨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뇌졸중, 협심증 등의 가족력, 체중감소, 편식, 운동부족, 음주 및 스트레스 과다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로 고생하면서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위장에 탈이 생겨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심장화기(心火)를 식혀주고 진액을 공급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근육·지방조직의 목표 장기는 물론 간장, 소장, 비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자연치유력을 지닌 면역체계를 회복시켜 주면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

개개인의 근본적인 당뇨 유발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증상별, 체질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 비만, 근심걱정, 분노와 음주과다, 신수소모 과다에 따라 그 원인을 제거한 후, 장 기능을 올려주고 내분비 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본격치료에 들어가면 뚝뚝 떨어지는 혈당치를 환자 스스로 확인하면서 환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치료효과에 만족하게 된다.

지금까지 당뇨병이 난치병으로 알려진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면역시스템의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표면적인 증세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당뇨치료 효능이 있는 순수 한방 자연약초는 인동덩굴, 닭의장풀, 화본, 상백피, 화살나무, 패란, 불수, 신약, 가시오가피 등이다. 천연 유기농 채소와 무공해 식품이 몸에 해가 없듯이 약재 또한 자연산이 더욱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나 해독작용도 있다.

(연락처 : 573-8375)

나의 건강법

몸과 정신건강에 더 없이 좋은 마라톤

金 東 根(73년 農大卒)북한 개성공단 관리기관 이사장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십리 길을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그래도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는 걷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걷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바쁜 도시생활과 일에 둘러싸여 살다보면 걷는 시간을 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는 성인병 등의 여러 증상들은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할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속보와 달리기에 재미를 붙였다. 주말이면 지인들과 만든 마라톤동호회(달사모)에서 단거리 레이스를 즐기는 편이고 마라톤대회에도 종종 참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몸담고 있을 때는 업장서서 사내 마라톤동호회를 결성하고 직원들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마라톤대회에 나가 함께 땀흘리고 뛰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직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는 속보와 마라톤 마니아가 다 됐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다. 처음엔 5km 뛰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꾸 하다보니 근력이 조금씩 늘어 지금은 10km 정도는 거뜬히 뛴다. 조금만 더 훈련하면 하프마라톤 코스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마라톤을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저녁뉴스를 일찍 보고 동네 탄천 자전거 도로를 속보로 걸으면서 업무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느긋하고 수긋하게 뭘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름지기 세상일이란 가속으로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느긋하게 사는 여유를 부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일이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뛰면서 땀흘리면 길게 펼쳐진 그 길처럼 인생의 길도 무한히 열려 있는 것 같고 분주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고민하던 문제가 차근차근 풀어지곤 한다.

이른바 속도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아침저녁으로 걷고 달리는 몸의 充溢한 움직임을 느끼고 사는 것이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동 정

수 상

▲金玉照(63년 法大卒·한림대 석좌교수)= 지난 8월 31일 저서 「미디어윤리」(커뮤니케이션북스)로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철우언론법상 대상을 받음.

▲朱良子(66년 大學院卒·한몽골교류협회장)= 지난 8월 23일 몽골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몽골간의 민간 외교에 기여한 공로로 나차긴 바가반디 대통령으로부터 수교훈장을 받음.

▲曺南鉉(70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8월 14일 한국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월간문학 동리상(평론부문)을 받음.

▲陳大濟(74년 工大卒·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8월 3일 미국 워싱턴주 포틀랜드공대 기술경영연구소 PICMET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기술관리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음.

▲崔洙卿(83년 大學院卒·경상대 교수)= 지난 8월 4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됨.

▲張明宇(89년 醫大卒·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 교수)= 최근 수많은 미국인 교수를 제치고 5년 연속 우수교수상을 받음.

▲權五昌(55기 ACAD·대한주택보증 사장)= 지난 8월 17일 한국부패학회와 시민단체인 클린코리아운동본부가 주관한 「반부패 청렴대상(윤리경영)」을 받음.

이동·선임

▲孔貞澤(57년 商大卒·前남서울대 총장)= 지난 8월 26일 서울시 민선 제4대 교육감에 취임함.

▲安恭爀(62년 法大卒·前보험감독원장)= 지난 8월 23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鄭城鎭(63년 法大卒·前국민대 총장)= 지난 8월 27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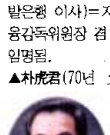
▲金溶鎭(63년 音大卒·한양대 교수·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지난 8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취임함.

▲崔弘健(66년 法大卒·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지난 8월 9일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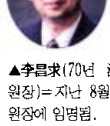
▲林仁國(67년 師大卒·동국대 대학원장)= 지난 8월 16일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열린 한국동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선임돼 9월 1일 취임함.

▲金昇圭(68년 法大卒·변호사)=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됨.

▲柳熙烈(69년 文理大卒·前과학기술부 차관)= 지난 7월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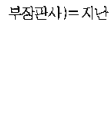


▲尹增鉉(69년 法大卒·아시아개발은행 이사)= 지난 8월 9일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됨.



▲朴虎君(70년 文理大卒·前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7월 29일 인천대 제4대 총장에 취임함.

▲李昌求(70년 法大卒·창원지법 원장)= 지난 8월 12일 수원지법 원장에 임명됨.



▲柳佑益(71년 文理大卒·모교 지리학과 교수)= 최근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제30차 세계지리학대회에서 임기 4년의 부회장 겸 집행위원에 당선됨.

▲梁東冠(71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8월 12일 청원지법원장에 임명됨.

동문 화가 지상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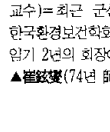
林賢洛 作

「나무들 서다」, 폴리에스테에 먹, 각 1×12m (가변크기), 설치미술, 2003.

〈작가약력〉

▲87년 모교 미대 동양화과 졸업
▲94년 모교 대학원 졸업
▲93년 중앙미술대전 최우수상
▲99년 국제화지원 우수작가 11인
▲01년 갤러리아투시이드 초대전
▲02~03년 제1기 창동 미술스튜디오 작가
▲02년 갤러리은덕 초대전, 금호미술관 초대전
▲03년 갤러리현대 원도우 초대전
▲현재 배재대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李宇根(71년 法大卒·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지난 8월 12일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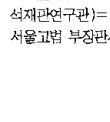


▲朴和永(72년 工大卒·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부장)= 지난 8월 2일 한국기계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취임함.

▲林國煥(73년 醫大卒·고려대 교수)= 최근 군산대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보건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임됨.

▲崔鉉燮(74년 師大卒·강원대 교수·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지난 8월 5일 강원대 제8대 총장에 임명됨.

▲申成澈(75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7월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에 취임함.



▲金能煥(75년 法大卒·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지난 8월 12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됨.

▲**權五奎**(75년 商大卒·前대통령 정책수석비서관)=지난 7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임명됨.

▲**鄭鎭星**(76년 社會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8월 12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 인권보호증진소위원회에서 인권특별보고관에 선임됨.

▲**文元京**(77년 自然大卒·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泰植**(78년 工大卒·한양대 교수)=지난 8월 1일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장에 취임함.

▲**金京會**(78년 師大卒·제주도 부교육감)=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육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됨.

▲**金英勳**(79년 法大卒·대전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됨.

▲**李至媛**(89년 人文大卒·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지난 8월 16일 검찰 역사상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에 임명됨.

▲**姜根泰**(54기 AMP·前뉴코아 법정관리인)=지난 8월 5일 내년 8월 개점하는 엠포리아 백화점 초대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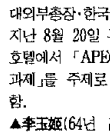
영사·출간

▲**田秀一**(62년 法大卒·광운대 교수·한국부패학회장)=지난 8월 17일 매일경제신문사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부패학회 하계특별세미나에서 정년퇴임기념 도서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를 봉정받음.

▲**姜恩葉**(63년 美大卒·조각가·계원조형예대 부학장·평생교육원 修新才 원장)=오는 10월 1일 수신재를 개원해 「가드닝과 쿠킹」 「아트와 디자인」 과정에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柳旺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대외부총장·한국APEC학회장)=지난 8월 2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APEC 2005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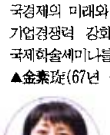
▲**李玉姬**(64년 音大卒·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지난 8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환경 콘서트 시리즈 세 번째 무대인 서울튜티챔버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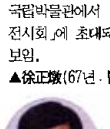
▲**金榮石**(66년 商大卒·우석대 총장)=지난 8월 10~14일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인 말라야대와 학사교류 및 언어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교류협력 조인식을 가짐.

▲**金仁基**(66년 行大院卒·중앙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지난 8월 12~13일 연세대 상경대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 —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함.

▲**金素珽**(67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지난 8월 18~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샹그릴라호텔, 23~29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전시회」에 초대돼 민화작품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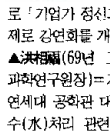


▲**徐正墩**(67년 醫大卒·성균관대 총장)=지난 8월 13일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교무위원·주임교수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洪相福**(69년 工大卒·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지난 8월 12일 연세대 공학관 대강당에서 「국내 수(水)처리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朴明珍**(69년 文理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19일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安鍾云**(73년 農大卒·농업기반공사 사장)=지난 8월 17일 서울 양재동 서울아트센터에서 「삶의 질 높임과 자원개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李湘鎭**(75년 商大卒·서울시립대 총장)=지난 8월 9~22일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와 미국 미시시피대 등 6개국 17개대 학생들을 초청해 「2004 서울시립대 국제여름학교」를 운영함.

▲**廉寶英**(76년 音大卒·서울교대 교수·**사진 위**)·**玄在嘉**(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8월 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두오 리사이틀을 열어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생상의 「폴로네이즈」 등을 연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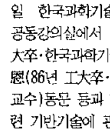
▲**白元永**(76년 醫大卒·경상대 학장)=최근 경상대 병원 교육연구동 강당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제일국립의대와의 의학교류협정을 기념해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Modern Problems of Liver and Biliary Tract Disease in Korea and Uzbekistan」이란 주제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함. 또 경상대 의대 건강과학연구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04년 중점연구소에 선정됨.

▲**安末煥**(81년 美大卒·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지난 8월 10~22일 서울아산병원 갤러리에서 「나무—관계」를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함.

▲**林慶淑**(85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지난 8월 1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슈베르트, 드뷔시,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를 개최함.

▲**裵重熹**(89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8월 25~26일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동강의실에서 崔道亨(72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成永慶(86년 工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동문 등과 함께 연료전지관련 기반기술에 관한 강좌를 진행함.

▲**安智賢**(95년 音大卒·부천시립 교향악단 부수석·첼리스트)=지난 9월 1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니스트 정수연씨와 함께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으로 두오 리사이틀을 개최함.



▲**沈甲輔**(3기 AMP·삼익LMS 부회장)=지난 8월 12~14일 경기도 기흥 골드체미리큰도에서 마케팅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사적 마케팅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함.

▲**朴舜浩**(43기 AMP·세정그룹 회장)=지난 8월 18일 부산외국어대 중강당 10호관에서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정리=安興燮기자)

추억의 창

사상보다 우정이 앞선 월북동기들 6·25때 내려와 학생들 도와주기도

吳 應 瑞(47년 醫大專門部卒)치과원로회수회 회장

입학식에서 동기들과 함께(원내 필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우리 겨레에 큰 시련이 닥쳐왔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져 38선이 생기고 그 양측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좌우로 대립되어 원수가 된 미·소가 이 강토에 피물들이는 참상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시기에 국제 5개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발표되면서 5년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전국민이 반대하자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좌익이 갑자기 자세를 바꿔 절대 찬성으로 대립하게 됐다.

여기에 이용당한 계층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으나 미군정은 교육의 획일성을 도모하고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공립대학 전문학교를 묶어 단일 종합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대학교 창립을 수행했다. 과연 서슬이 시퍼렇고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남한을 조속히 점거하려고 좌파학생들을 부추겨 활동을 강화했다.

여기서 필자가 몸담았던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 격동기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국한 5명의 전학생, 특히 일제시절 반일투쟁 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서 석방된 閔丙翊·徐孝源·崔一根옹, 方寅植·金魯鉉동문 그리고 일본 진병을 기피하려고 위장 사망하여 숨어 있는 필자가 복교됐다. 그중 4명이 주동이 되어 서울대학교 설립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으니 이에 동조하는 좌익학생 郭平植·金翔圭·徐洪錫·安炳祿·尹哲洙동문(이상 모두 월북) 등이 치대동창회의 朴扶樂·金文祚동문과 야합하여 사립대학으로 운영하겠다고 불을 붙였다.

당시 치과대학은 서울 중심지인 소공동에 위치해 있어 각 대학의 반대 학생들이 몰려왔다. 워낙 좌익바람이 세차 찬성파를 반동분자로 몰아붙여 연동을 삼가야 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미군정이라는 배경이 있으니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에서 공부한 李有慶교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그 기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때는 같은 교실에서 찬구간에도 찬반이 갈라지면 말도 안하고 서로 반목을 계속했다. 세월이 흐르자 신생 서울대학교는 문을 열었고 미국인 젊은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심하게 반대하던 학생들은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이때를 전후하여 월북한 동기생수는 11명에 이른다. 그것으로 일단 물결이 진정해졌고 역사적인 서울대학교가 탄생된 것이다.

한편 월북했던 동기들 중 일부가 6·25전쟁 때 인민군의 군정요원으로 다시 서울로 입성했는데, 뜻밖에 우리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입장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방패가 되어 안전을 도모한 것은 괄목할만한 미담이다. 그리고 다시 북으로 도망가는 날, 눈물로 작별을 한 것은 사상보다는 우정이 앞섰으리라. 오늘날 서울대 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최고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서울대학교에 편입된 것이 참으로 잘된 결과라고 자부한다.

신 간

■ 현대 한국지리학사
—吳洪晳 著

동국대 교수, 유타대 교환교수 등을 지낸 吳洪晳(58년 師大卒·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중앙지명위원)동문이 한국지리학사의 연구성과와 활동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펴낸한 교재.

영역과 주제는 반영도서, 개설서와 지리지, 분야별 전문서적과 기념논문집, 학술심포지엄과 기타 학술관련활동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지리학계의 발자취와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비판적 시각으로 수록했다. (도서출판 줌·북메이트刊·값25,000원)

■ 글로벌시대의 M&A사례
—諸葛政雄·崔道成·郭守根 共著

대립 I&S 諸葛政雄(62년 商大卒)부회장, 모교 경영학과 崔道成(74년 商大卒)·郭守根(77년 經營大卒)교수가 공동으로 M&A 사례 가운데 글로벌시대를 반영하는 사례들과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끈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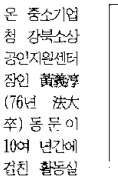
금융산업에서의 전략적 기업인수, 글로벌 M&A 등 합병의 사후관리와 기업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고, 경영전략과 경영 환경 분석 등에 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17편의 사례를 수록했다. (창해刊·값48,000원)

■ 道本主義
—許信行 著

농림수산부 장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許信行(66년 農大卒·건국대 초빙교수)동문이 영원한 만능 이데올로기, 평화의 이데올로기, 진리의 이데올로기인 도본주의에 대해 저술한 책.

이 책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생성과 성격을 규명하고,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며, 정치·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있다. (범우사刊·값10,000원)

■ 허리케인 속에서 왈츠를 춰라
—黃義淳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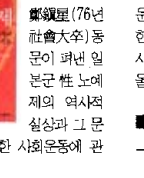


활기찬 세상을 만들기 위한 「뇌비람(뇌+신바람)운동」을 전개해 온 중소기업청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장인 黃義淳(76년 法大卒)동문이 10여 년간에 걸친 활동실적을 토대로 정리한 책.

「정반대의 상황인 허리케인과 왈츠를 조화시킴으로써 고달프고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는 黃동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뇌과학, 우주물리학, 생명과학, 생태학, 심리학, 철학, 기상학, 정보학 등의 다양한 과학적 패러다임들이 총동원된 이 책을 통해 黃동문이 인관성 있게 주장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의식으로의 도약과 확장」이다. (인터시티콘刊·값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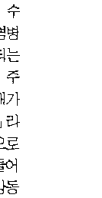
■ 일본군 성 노예제
—鄭鎭星 著



모교 사회학과 교수인 鄭鎭星(76년 社會大卒)동문이 펴낸 일본군 性 노예제의 역사적 실상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서.

이 책은 먼저 「일본군위안부」라는 개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일본군 성 노예」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최근의 문제의식을 표현했다. 그리고 아직 발굴 도중인 군위안소의 개념과 설립과정, 강제 동원, 성 노예제도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실상, 그에 대한 「사회운동」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운동을 저지하는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의 태도를 고찰했다. (서울대학교출판부刊·값15,000원)

■ 우면산의 비밀
—金潤榮 외 지음



동화작가인 모교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金潤榮(81년 工大卒)교수의 제12회 MBC 창작동화 수상집.

장편 동화 대상을 수상한 「우면산의 비밀」은 전국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인공 남매가 「면역초」라는 풀을 찾으러 우면산 지략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세계로 빨려 들어가서 여러 모험을 한다는 환상동화. 관타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 문법을 잘 지켜내면서 흥미롭게 전개한 깔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성출판사刊·값8,000원)

공 연

■ 테너 盧珠采 독창회
—10월 2일 영산아트홀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盧珠采(71년 音大卒·명지대 교수)동문이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개최한다.

盧동문은 이번 공연에서 바버의 「별이 빛나는 밤에」, 포레의 「여기 낮은 곳」, 푸치니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柳眞燮바이올린독주회
—10월 2일 예술의 전당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柳眞燮(94년 音大卒·모교 강사·시진)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서울바로크 합주단원으로 활동 중인 柳동문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이자이, 라벨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정리=安興燮기자)

동창회보를 읽고

읽을거리 많아지고 지면 변화 느껴져

李虎相
(63년 師大卒)
前동원중 교장

언제부턴가 동창회보의 면모가 일신된 느낌이 들었다. 우선 읽을거리가 많아졌다. 각계각처에서 종사하는 동문들이 쓴 글들이 다양하고 재미가 있어 받아들면 거의 다 읽게 된다. 317호의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칼럼이나 인터뷰 기사는 좋았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글을 올려준 동문들에게 감사한다. 감사한 마음에 글을 하나 부친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 천재가 태어났다고 떠들썩하다.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인데 영어도 척척이고 일본말, 중국어도 초보는 넘는다고 한다.

네 살 때 어느 날 벽에 붙여놓은 천자문을 보고 할머니가 한 20여 자를 읽어주었는데 다음날 혼자서 대충 읽더란다. 이후 엄마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아이에게만 매달렸다. 영재학원에도 보내고 일본어, 중국어 테이프를 사다가 종일 틀어주고 있다. 정서함양을 위해 잠잘 때도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의 음악을 틀어놓는다. 머리가 좋을수록 건강해야 된다고 수영도 배운다.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남편 혼자 벌어서는 살림 꾸려가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도 부인은 머지않아 조기유학을 보낸다고 말한다.

어느 날 그 집에 대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참다못한 남편이 반기를 든 것이었다. 「잘하건 못하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정규학교를 꼬박꼬박 다니며 과정을 다 마쳐야 한다. 따라서 조기유학이다 검정시험이다 하여 정규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안 된다. 학교과정을 제대로 다 거쳐야 올바른 인성으로 자란다」 대충 이런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날부터 남편은 아이 머리맡에 서울대 사진과 교표를 붙여 놓았다.

만약 그 아이 아버지가 내게 상담을 해온다면 주장을 굽히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정해진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일의 처리에서 합법이었다는 안도감을 주고, 인생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면 안온하고 편안해진다. 자기 또래들이 늘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 사진은 떼라고 할 것이다. 다 큰 뒤에 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들어갈 만한 친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보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모교를 생각하며 행복감에 잠기는 것도 나이 들어 생각하니 같은 과에 한 날 한 시에 입학했던 친구들 때문이다. 이건 명예도 출세도 돈과도 상관이 없다. 그저 같이 할 만한 또래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동창으로 천재라는 소리를 들던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에 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나이의 친구보다 3년이 빠른 셈이었다. 서울대에 입학했다 하여 온 면이 발칵 뒤집혔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 초등학교 교장, 면장, 파출소장, 우체국장까지 모아놓고 잔치를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지 달포에 학교를 그만뒀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적응이 안 된 탓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성장이 늦어 그때 아직 사춘기에도 이르지 않았다. 또 요새 같이 젊은 영재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도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입학시험이라는 것이 수학능력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 아무튼 그 후 우리 고향에는 그가 대전 어디서 소매치기 두목이 되어 있더라는 소문이 돌았고, 오늘날까지 마치 전설처럼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각 지역 동문들의 활약상 소개했으면

李珠璟
(74년 音大卒)
공주대 음악교육과 교수

동창회의 전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30년이 되었음을 새삼 깨닫게 됐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각을 뒤늦게나마 갖게 됐다. 서울대에서 공부했으나 별다른 느낌 없이 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인지 얼마 전부터 필자에게 총동창회보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우선은 반가운 마음이었고 읽어 가는 중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동문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차츰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생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런 필자를 보면서 동창회보가 가지는 힘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의 동창회보를 읽고 느낀 점은, 동문 칼럼에서 서울대학교의 폐지론에 대한 막연한 불쾌감보다는 원론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지역 동문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필자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학교에서의 동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특히, 동문기자의 취재수첩을 통한 현대 한국사의 한 단면을 파헤친 기사, 현재 운행 중인 「꿈의 고속철」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한 우려를 보도한 기사 등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내용을 다뤄 신선한 느낌이었고, 요즘 어느 신문을 읽어야 할지도 모를 어려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사적인 기사를 심층 취재 보도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또한 육순에 배낭여행을 한 선배님들, 같은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선후배들, 서울대 가족에 관한 기사, 건강법에 대한 글들은 필자가 살아가는 앞날에 대한 도전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고맙고 의미 있는 기사들이었다.

간간이 실려 있는 광고들도 동문들이 경영하는 곳인가 하고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됨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서 대충 넘기곤 하는 평상시 광고를 대하는 자세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끝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창회보에 바라고 싶은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교 동문이면서 아직 동창회보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즘에는 사정이 전보다 나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활약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교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줬으면 한다.

어려운 시점에 서울대인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므로 이 동창회보를 통한 격려와 힘의 결집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회비 납부자 명단」 제일 꼼꼼히 읽어

丁炳汶
(81년 人文大卒)
현대자동차 이사

누군가의 배려로 동창회보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최근인데다 근 10년만의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전과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는 제호와 판형, 그리고 편집의 내용이 오히려 반갑고 정답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일단 바꿔놓고 보자는 식의 주장이 도처에 왕왕거리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변함없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반가움이라니…

직장이 몇 번 바뀌고 하는 바람에 동창회 사무실과 연락이 끊기고 그 덕분에(?) 한동안 동창회비를 내지 않게 되었던 필자가 제일 열심히 보는 면은 우습게도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이 있는 뒷부분의 두세 쪽이다. 필자는 실로 이 면을 꼼꼼히 챙기며 읽는다.

물론 회비를 낸 뒤에는 그게 빠지지 않았는지 걱정하며 다음호, 다음다음 호까지 살핀다. 서울에서 대량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이름 석자가 날 일이 별로 없는 필자로서는 그렇게라도 내 미미한 이름을 혼자 확인해 보면서 조그만 기쁨을 가져 보는 것이다.

그보다도 사실 필자는 이 면에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저 단과대학 별로, 이름 순으로, 졸업연도를 넣어서 죽 나열해 놓은 이 목록에서 필자가 얻는 정보들은 이를테면 「어! 이분이 우리 동문이었구나!」 「이분과 저분이 동기로구나!」 「이 선배가 00학번인가 보네?」 「이 친구가 회비를 낼 줄이야」 「얘가 이사를 맡고 있네?」 「이 형이 아주 작정하고 평생회비를 내는구나!」 「교수님도 회비를 내시나?」 「우리 형 이름은 역시 없어. 이마 앞으로도 절대 볼 수 없을걸 … 쯧쯧」등 속으로 남들이 들으면 「별걸 다 가지고 정보라고 그러네」라고 말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어떻든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데군데에 내 나름의 느낌표를 꼬박꼬박 붙여 가며, 더러는 혼자 궁시렁 거리면서 꽤 많은 시간을 쏟는다.

물론 가운데쯤에 있는 인물 동정도 보지만 필자에겐 그게 오히려 밥이 아니라 친인 셈이다. 하여튼 어떤 분이 동창회비를 냈다는 단순한 사실 보도(?)가 마치 그 분의 안부를 전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고 새삼스럽게 동문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묻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필자가 뭐 별스런 데 관심을 두는 독자인 것도 아닌 셈이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마도 곧 필자가 쓴 글이 실린 다음호를 보면서 왠지 좀 시답잖은 글 내용에 뜻짜여 하면서도 「이 참에 나도 그냥 평생회비로 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에서부터

〈이사 : 2004년 3월 29일~2004년 4월 30일·일반 : 2004년 3월 29일~2004년 4월 30일〉

회 장 단

△삼임부회장 孫一根=100만원
△부회장 夔命仁=100만원
△부회장 辛東一=100만원
△부회장 朴鏞實=100만원
△부회장 郭永駿=100만원
△부회장 孫京植=100만원
△부회장 吳仁鍾=100만원
△부회장 許鐵奎=100만원
△부회장 孫吉丞=100만원
△부회장 劉常夫=100만원
△부회장 趙炳祝=100만원
△부회장 吳 昞=50만원
△부회장 鄭忠姝=100만원
△부회장 具本俊=100만원

관 악 회

△감사 朱成民=30만원

상임이사

△朴英淑 CHCK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이사 50만원) △강신자 음대㊱
△고정택 문리㉟ △권헌무 상대㊳
△권혁구 법대㉛ △김 영 약대㊼
△김관수 의대㊼ △김근배 공대㊵
△김동권 법대㊼ △김명석 문리㊼
△김성권 의대㊼ △김세진 치대㊼
△김영일 농생㊾ △김용권 공대㊷
△김주형 농생㊸ △김학재 법대㊼
△김회선 법대㊼ △남원일 상대㊹
△노석호 行政㊻ △명동성 법대㊼
△박경순 법대㊼ △박경재 법대㊷
△박금환 자연㊽ △박영대 상대㊷
△박용우 문리㊶ △박재갑 의대㊸
△박종국 사대㊶ △박종헌 법대㊸
△백종헌 AMP㊶ △서형석 법대㊾
△선호영 의대㊷ △송춘달 AMP㊵
△신용한 법대㊶ △안주수 공대㊸
△염호성 사대㊷ △염병대 공대㊷
△오병두 자연㊶ △오한국 공대㊶
△유남용 공대㊸ △유승민 사회㊷
△유인협 의대㊼ △유태현 법대㊾
△이만철 공대㊷ △이면우 공대㊾
△이세혁 공대㊼ △이순종 공대㊾
△이용근 공대㊼ △이이석 문리㊸
△이재후 법대㊷ △이정수 AIP㊷
△이정환 의대㊾ △이정희 음대㊸
△이종용 법대㊾ △이충우 상대㊷
△이태섭 공대㊷ △이현범 법대㊷
△임헌구 공대㊸ △장계순 치대㊸
△조기웅 문리㊸ △조병철 공대㊾
△조순옥 생활㊷ △조충환 법대㊾
△조학수 사회㊼ △지헌택 치대㊼
△진병건 법대㊸ △최성식 상대㊾
△최지성 사회㊼ △한일성 법대㊾
△한진석 의대㊼ △황 현 공대㊸
△황광웅 공대㊸

(일반 20만원) △강 완 사대㊺
△강 춘 자연㊾ △강지숙 의대㊿
△고종익 농생㊿ △길병위 법대㊼
△김갑철 농생㊼ △김강배 AMP㊾
△김규호 공대㊹ △김덕호 사대㊼
△김동화 법대㊾ △김두완 APC㊾
△김명환 의대㊺ △김병수 공대㊸
△김상수 자연㊸ △김상주 문리㊻
△김상훈 법대㊸ △김성민 경영㊷
△김승경 AIP㊸ △김영봉 음대㊼
△김영의 치대㊸ △김유환 AMP㊺
△김윤섭 경영㊺ △김재우 ACAD㊺
△김정아 음대㊺ △김제완 문리㊽
△김지호 공대㊽ △김진용 치대㊽
△김진희 사대㊽ △김필순 사대㊽
△김홍래 AMP㊽ △문경희 법대㊽
△박 찬 사회㊾ △박관수 공대㊾
△박일환 공대㊽ △박종호 약대㊼
△박진우 공대㊽ △박철원 사대㊽
△박효진 의대㊾ △박희수 AIP㊼
△방재욱 사대㊾ △배은정 의대㊼
△배호순 사대㊼ △백종천 문리㊼
△석동균 공대㊼ △송광용 사대㊼
△송상헌 법대㊽ △송영보 수의㊽
△송인규 공대㊼ △송정헌 공대㊽
△신경섭 자연㊽ △신상민 ABP㊾
△신상철 경영㊾ △신정용 상대㊽
△신호승 공대㊾ △심달섭 상대㊼
△안건혁 공대㊼ △안수구 농생㊼
△안재웅 사회㊾ △양창순 사대㊼
△온승엽 공대㊾ △원상희 의대㊽
△유공현 AMP㊿ △유성록 사회㊾
△윤주환 경영㊾ △이강주 치대㊼
△이건재 공대㊿ △이경덕 문리㊼
△이광우 공대㊼ △이상완 AMP㊾
△이숙희 AMPK㊾ △이순자 문리㊼
△이승희 미대㊼ △이영재 공대㊽
△이우진 농생㊽ △이윤성 의대㊼
△이정희 간호㊽ △이종호 공대㊽
△이홍택 공대㊽ △임동신 공대㊽
△장병완 상대㊽ △전용욱 상대㊽
△정미숙 사대㊽ △정복근 문리㊽
△정삼희 수의㊾ △정석권 문리㊾
△정운오 사회㊾ △정인규 법대㊾
△정희선 간호㊾ △제정원 사회㊾
△조용훈 약대㊾ △조태호 保醫㊾
△차기원 공대㊼ △최 병 법대㊾
△최남룡 치대㊼ △최동욱 공대㊾
△최명옥 문리㊾ △최영기 사회㊼
△최윤호 의대㊾ △최재기 치대㊾
△최장인 공대㊾ △최진석 상대㊾
△최태희 AMP㊾ △최허운 공대㊼
△하서용 공대㊾ △허대석 의대㊾
△홍계선 문리㊾ △홍두표 상대㊾
△홍석주 경영㊾ △홍용기 공대㊼
△황영운 HPM㊹ △황의인 법대㊾
△황태인 공대㊾ △황원호 문리㊾
△황헤진 음대㊹

이 사

◆인문대 △김동원㊷ △변원일㊷
△정동영㊸ △홍문수㊷
◆사회대 △김동식㊿ △박규현㊿
△박진희㊿ △이순점㊼ △이재진㊿
△이해찬㊿ △장경찬㊼ △최형근㊿
◆자연대 △김종은㊽ △이 건㊼
△이병홍㊼ △점철희㊼
◆간호대 △박문희㊽ △서분자㊽
△하암숙㊼
◆경영대 △김대훈㊼ △김상범㊽
◆공대 △강순옥㊼ △강침오㊼
△경진호㊾ △고인석㊾ △견문식㊼
△관수봉㊼ △권오현㊼ △김광남㊾
△김광옥㊾ △김기협㊼ △김덕수㊾
△김덕우㊾ △김동호㊼ △김봉원㊾
△김상희㊾ △김석철㊾ △김선동㊾
△김영기㊾ △김원식㊼ △김유규㊾
△김정우㊾ △김정태㊾ △김제영㊼
△김종구㊼ △김주용㊾ △김주환㊾
△김진원㊼ △김태섭㊼ △김태원㊾
△김태준㊾ △김호대㊼ △노병우㊾
△문수길㊼ △박경호㊼ △박동정㊾
△박승빈㊾ △박준형㊼ △박휘호㊾
△방수일㊾ △백영방㊾ △서진근㊾
△설영희㊾ △신원기㊼ △심명필㊼
△안덕주㊾ △양영일㊼ △유광준㊼
△유병철㊾ △유홍렬㊾ △윤석민㊾
△윤정호㊼ △이 철㊼ △이관수㊼
△이동수㊾ △이상룡㊾ △이상호㊼
△이성원㊾ △이원국㊾ △이윤우㊾
△이정남㊾ △이중재㊾ △이호정㊼
△이환범㊾ △이홍배㊾ △인주선㊾
△입무현㊾ △입병주㊾ △입헌구㊼
△장동욱㊾ △전성욱㊾ △정경남㊼
△정명식㊾ △정상근㊾ △정연철㊾
△정영근㊾ △정옥희㊾ △조재문㊾
△최동훈㊾ △최명경㊾ △최용덕㊾
△최정길㊾ △최장영㊾ △편도권㊾
△표상기㊾ △한수은㊾ △한형수㊾
△홍성부㊾ △홍영희㊾
◆농생대 △권오진㊾ △김광호㊾
△김성곤㊾ △김영섭㊾ △김일종㊾
△김종훈㊾ △김홍기㊾ △김훈동㊾
△오세승㊾ △유형우㊾ △윤석호㊾
△이범일㊾ △이병일㊾ △이상규㊾
△이상용㊾ △이상하㊾ △이순옥㊾
△이우환㊾ △이장섭㊾ △이재현㊾
△이혜근㊾ △최락현㊾ △최원규㊾
△최종묵㊾ △홍현홍㊾ △홍현주㊾
◆문리대 △구태회㊾ △권왈슨㊾
△김 구㊾ △김덕화㊾ △김두희㊾
△김병희㊾ △김상균㊾ △김영철㊾
△김인규㊾ △김정훈㊾ △김종하㊾
△김태수㊾ △나병욱㊾ △남광성㊾
△남궁용㊾ △남영우㊾ △류재갑㊾
△민경환㊾ △박맹호㊾ △박세희㊾
△박찬일㊾ △박희주㊾ △서옥식㊾
△성희웅㊾ △송기중㊾ △신경민㊾
△신동오㊾ △안국정㊾ △윤상철㊾
△이정형㊾ △이광희㊾ △이남기㊾
△이상준㊾ △이목경㊾ △임석진㊾
△임채호㊾ △장중웅㊾ △장하구㊾
△정진태㊾ △정하상㊾ △차홍봉㊾
△최덕인㊾ △최서영㊾ △최종덕㊾
△한갑수㊾ △한우석㊾ △홍사덕㊾
◆미대 △박대순㊾ △성기섭㊾
△유종민㊾ △정치환㊾ △조희영㊾
◆법대 △강기원㊾ △김영규㊾
△강태형㊾ △강홍주㊾ △김홍석㊾
△공노명㊾ △권남혁㊾ △권문구㊾
△김갑중㊾ △김능환㊾ △김덕영㊾
△김문희㊾ △김봉학㊾ △김석휘㊾
△김세권㊾ △김영훈㊾ △김원태㊾
△김응렬㊾ △김익하㊾ △김정현㊾
△김진무㊾ △김창홍㊾ △김효영㊾
△김효종㊾ △나경식㊾ △나경원㊾
△나채규㊾ △박영수㊾ △박용상㊾
△박용수㊾ △박주은㊾ △박천식㊾
△바철언㊾ △박충근㊾ △박홍식㊾
△방극성㊾ △백대현㊾ △변영환㊾
△봉종현㊾ △성낙인㊾ △성주형㊾
△소철봉㊾ △송재현㊾ △신희택㊾
△양인평㊾ △우 훈㊾ △유상순㊾
△유원석㊾ △유정석㊾ △유희열㊾
△윤경희㊾ △윤동윤㊾ △윤재승㊾
△윤주원㊾ △윤준원㊾ △윤형로㊾
△이갑남㊾ △이건종㊾ △이광렬㊾
△이대공㊾ △이동병㊾ △이무룡㊾
△이범주㊾ △이선우㊾ △이세작㊾
△이수일㊾ △이재성㊾ △이재원㊾
△이재원㊾ △이재전㊾ △이재철㊾
△이재희㊾ △이종기㊾ △이종상㊾
△이천수㊾ △이희석㊾ △임서빈㊾
△임양운㊾ △임태우㊾ △장삼익㊾
△장광웅㊾ △정시영㊾ △정재형㊾
△정한상㊾ △조장환㊾ △주찬희㊾
△진철묵㊾ △차동민㊾ △차원태㊾
△차정일㊾ △최근선㊾ △최병륜㊾
△최칠규㊾ △한영석㊾ △함영업㊾
△현경대㊾ △황규정㊾ △황길수㊾
△황병인㊾ △황영하㊾
◆사대 △강의정㊾ △강철용㊾
△김기곤㊾ △김덕순㊾ △김종기㊾
△김희자㊾ △나근형㊾ △문상호㊾
△민홍기㊾ △박세원㊾ △박수환㊾
△박영자㊾ △박찬구㊾ △서범석㊾
△소진광㊾ △신한우㊾ △어명하㊾
△엄영주㊾ △오세탁㊾ △윤재봉㊾
△윤종상㊾ △이기태㊾ △이석조㊾
△이승원㊾ △이원우㊾ △임재홍㊾
△임향순㊾ △장종택㊾ △장충식㊾
△전팔근㊾ △정문성㊾ △최동환㊾
△최선집㊾ △한도연㊾ △홍신일㊾
△황성옥㊾ △황제호㊾
◆상대 △강승구㊾ △강신종㊾
△구선회㊾ △구웅서㊾ △권헌무㊾
△권희백㊾ △김경모㊾ △김기현㊾
△김두만㊾ △김부규㊾ △김성구㊾
△김영신㊾ △김재철㊾ △김종욱㊾
△김종의㊾ △김종희㊾ △김준식㊾
△김태동㊾ △김홍국㊾ △문철한㊾
△박건호㊾ △박노영㊾ △박영주㊾
△박종민㊾ △박찬문㊾ △서성석㊾
△성기학㊾ △손상모㊾ △손석주㊾
△손태일㊾ △신동현㊾ △신명수㊾
△신복영㊾ △심재평㊾ △염일영㊾
△엄한심㊾ △여헌동㊾ △오상봉㊾
△오세종㊾ △원용훈㊾ △위기철㊾
△우연근㊾ △유치송㊾ △윤종현㊾
△이계문㊾ △이관구㊾ △이광수㊾
△이국희㊾ △이동원㊾ △이석재㊾
△이순식㊾ △이연재㊾ △이인원㊾
△이재욱㊾ △이정식㊾ △이정재㊾
△이준용㊾ △이백섭㊾ △장덕신㊾
△장덕원㊾ △전문준㊾ △정의동㊾
△정종득㊾ △조덕진㊾ △지창수㊾
△최동건㊾ △최문열㊾ △최정호㊾
△최종인㊾ △최종찬㊾ △표계영㊾
△한병무㊾ △한찬수㊾ △허성갑㊾
△홍성표㊾ △황동구㊾ △황문환㊾
◆생활대 △김초일㊾ △유효선㊾
△이의숙㊾
◆수의대 △김만영㊾ △김순무㊾
△노병의㊾ △서동일㊾
◆약대 △강석진㊾ △고형훈㊾
△권경곤㊾ △김광순㊾ △김규호㊾
△김규호㊾ △김인제㊾ △김진훈㊾
△박민기㊾ △박창서㊾ △신화범㊾
△신화용㊾ △오응준㊾ △윤광철㊾
△이계준㊾ △이광수㊾ △이길용㊾
△이상섭㊾ △이용선㊾ △정미희㊾
△주상섭㊾ △한상후㊾ △홍성한㊾
◆음대 △김문자㊾ △김한식㊾
△김희재㊾ △남범자㊾ △도완녀㊾
△백원정㊾ △이성만㊾ △이오규㊾
△이재숙㊾ △정복주㊾
◆의대 △강대성㊾ △강형운㊾
△고원순㊾ △김근우㊾ △김동명㊾
△김병주㊾ △김병호㊾ △김병국㊾
△김범수㊾ △김세경㊾ △김영균㊾
△김병수㊾ △김현집㊾ △노충희㊾
△박영하㊾ △박용재㊾ △박정범㊾
△박재서㊾ △송익휴㊾ △심달섭㊾
△안회영㊾ △유경상㊾ △이갑순㊾
△이문호㊾ △이종태㊾ △이종태㊾
△이진용㊾ △이함진㊾ △조병규㊾
△진용한㊾ △최국진㊾ △한동수㊾
△한병채㊾
◆치대 △강태성㊾ △김경애㊾
△김광빈㊾ △김상옥㊾ △김성오㊾
△김여미㊾ △김정균㊾ △김평일㊾
△남동식㊾ △배유홍㊾ △백기석㊾
△백성기㊾ △서영수㊾ △손등수㊾
△양재호㊾ △우형식㊾ △유영세㊾
△이기태㊾ △이수백㊾ △이영대㊾
△이한무㊾ △임문식㊾ △임성수㊾
△정소영㊾ △조달문㊾ △조행직㊾
△주영숙㊾ △최욱환㊾ △허준구㊾
◆대학원 △윤재한㊾
◆경대원 △박원봉㊾ △이병재㊾
◆보대원 △구성회㊾ △김덕성㊾
△박원길㊾ △박희서㊾ △여현태㊾
△정희곤㊾
◆사대원 △이우길㊾ △정경식㊾
◆신대원 △김원기㊾ △황영일㊾
◆형대원 △권기성㊾ △김상영㊾
△박범채㊾ △신순우㊾ △신윤식㊾
△장재철㊾ △조남호㊾ △주병덕㊾
△전호범㊾
◆AMP △권기술㊾ △박유재㊾
△정도헌㊾
◆AIP △김춘진㊾ △이정수㊾
◆SGS △강재식㊾ △임명수㊾
◆AIC △문헌일㊾

일 반

◆인문대 △고인숙㊾ △김 영㊾
△김봉현㊾ △김학래㊾ △박진형㊾
△박기홍㊾ △백참혁㊾ △원종례㊾
△원혜영㊾ △유연호㊾ △윤태근㊾
△이강록㊾ △이범규㊾ △이종범㊾
△이종은㊾ △이홍균㊾ △정일순㊾
△최성락㊾ △최은경㊾ △최정한㊾
△허낭윤㊾ △홍미애㊾ △황상선㊾
◆사회대 △강병일㊾ △강효석㊾
△구윤철㊾ △권우영㊾ △김 영㊾
△김광순㊾ △김동명㊾ △김영남㊾
△김영희㊾ △김용대㊾ △김재찬㊾
△김정국㊾ △김정염㊾ △김정훈㊾
△김진호㊾ △김현주㊾ △김혹석㊾
△도종윤㊾ △류시호㊾ △박광수㊾
△박성민㊾ △박용덕㊾ △박용현㊾

△박참수(91) △박춘섭(92) △박홍배(93)
△백인기(94) △삼지원(95) △성욱제(96)
△손도일(97) △신성수(98) △신세균(99)
△심일혁(100) △우상진(101) △이근승(102)
△이종건(103) △이한구(104) △이한영(105)
△임찬익(106) △장성호(107) △전성재(108)
△전형남(109) △정동윤(110) △정상우(111)
△정성효(112) △정양호(113) △정춘식(114)
△정현옥(115) △정홍수(116) △조병천(117)
△조운선(118) △진필수(119) △최병선(120)
△최영상(121) △최완수(122) △최현우(123)
△함준표(124) △현무성(125) △황민연(126)
△황영수(127)

◆자연대 △강대승(128) △강헌중(129)
△권상일(130) △김상보(131) △김용근(132)
△김옥래(133) △김철구(134) △신영용(135)
△신용순(136) △유광호(137) △윤상헌(138)
△이승환(139) △이응규(140) △장영재(141)
△전덕영(142) △정동주(143) △정원교(144)
△허영덕(145) △홍준혁(146) △황의진(147)

◆간호대 △김광숙(148) △김검래(149)
△김순례(150) △김혜정(151) △노윤구(152)
△송현숙(153) △신재홍(154) △이명혜(155)
△장명숙(156) △장정희(157) △정숙자(158)
△최완희(159) △홍미나(160)

◆경영대 △구성린(161) △권문목(162)
△권용기(163) △권지원(164) △김 웅(165)
△김경진(166) △김민환(167) △김선규(168)
△김봉진(169) △김용남(170) △김지용(171)
△김태원(172) △노희석(173) △문홍장(174)
△박기상(175) △박상진(176) △박성환(177)
△박세환(178) △박승원(179) △박찬수(180)
△박철희(181) △박현준(182) △반용음(183)
△서진식(184) △심규철(185) △안병룡(186)
△안효성(187) △이동희(188) △이인식(189)
△이창환(190) △이해성(191) △임근상(192)
△조성문(193) △최원호(194) △허승호(195)
△홍참수(196) △황동철(197) △황수연(198)

◆공대 △강경복(199) △강관원(200)
△강대신(201) △강병기(202) △강석림(203)
△강승호(204) △강영택(205) △강영훈(206)
△강참훈(207) △경상현(208) △고갑석(209)
△고상천(210) △고인준(211) △고형석(212)
△곽병헌(213) △구본승(214) △구본등(215)
△구성원(216) △구운회(217) △권두섭(218)
△권상열(219) △권해묵(220) △김건중(221)
△김광일(222) △김구변(223) △김권집(224)
△김근환(225) △김기준(226) △김대현(227)
△김덕석(228) △김동범(229) △김동식(230)
△김두진(231) △김민호(232) △김병국(233)
△김병협(234) △김병호(235) △김보웅(236)
△김상태(237) △김생빈(238) △김성수(239)
△김성환(240) △김세일(241) △김세진(242)
△김수남(243) △김양성(244) △김영산(245)
△김영철(246) △김영춘(247) △김원수(248)
△김유희(249) △김인식(250) △김인용(251)
△김인준(252) △김정원(253) △김정인(254)
△김정철(255) △김종신(256) △김종한(257)
△김주호(258) △김진국(259) △김진철(260)
△김진호(261) △김찬식(262) △김창수(263)
△김택중(264) △김학진(265) △김해웅(266)
△김형목(267) △김형중(268) △김호수(269)
△김홍주(270) △김홍훈(271) △김희창(272)
△남민우(273) △노중기(274) △노환영(275)
△문 광(276) △민경호(277) △박 훈(278)
△박기용(279) △박동만(280) △박동성(281)
△박봉훈(282) △박순길(283) △박신동(284)
△박양배(285) △박여종(286) △박영준(287)
△박영희(288) △박용기(289) △박인규(290)
△박인섭(291) △박정주(292) △박종관(293)
△박종태(294) △박호견(295) △박화구(296)
△박환정(297) △방선기(298) △배무현(299)
△백기남(300) △백남주(301) △변강섭(302)
△서상돈(303) △서상록(304) △서영근(305)
△선우식(306) △성낙준(307) △성일현(308)
△소봉영(309) △손석광(310) △송기석(311)
△송부호(312) △송승기(313) △송승훈(314)
△송준영(315) △송진혜(316) △송진환(317)
△송한섭(318) △신대승(319) △신동주(320)
△신동헌(321) △신상록(322) △신종섭(323)
△신현철(324) △신효순(325) △심문호(326)
△심한배(327) △심형주(328) △심호섭(329)
△안광열(330) △안기우(331) △안용모(332)
△안우성(333) △양수길(334) △어 준(335)
△어선원(336) △엄재영(337) △염덕준(338)
△오성세(339) △오세윤(340) △오승종(341)
△오태진(342) △우경호(343) △우효섭(344)
△유관석(345) △유삼희(346) △유삼덕(347)
△유영흠(348) △유웅석(349) △유인상(350)
△유일상(351) △유재범(352) △유제원(353)
△유태환(354) △윤만중(355) △윤석룡(356)
△이경한(357) △이광우(358) △이규원(359)
△이규재(360) △이근명(361) △이기영(362)
△이낙영(363) △이덕현(364) △이명식(365)
△이문수(366) △이범일(367) △이병휘(368)
△이부민(369) △이상리(370) △이상영(371)
△이상우(372) △이상헌(373) △이서규(374)
△이성렬(375) △이승동(376) △이승백(377)
△이영무(378) △이영주(379) △이완상(380)
△이용덕(381) △이용수(382) △이웅희(383)
△이원구(384) △이응묵(385) △이재근(386)
△이정구(387) △이정웅(388) △이정호(389)
△이종대(390) △이종례(391) △이종상(392)
△이종수(393) △이지영(394) △이지원(395)
△이진열(396) △이진원(397) △이캠화(398)
△이해철(399) △이현모(400) △이형은(401)
△이환재(402) △이희영(403) △임경춘(404)
△임민수(405) △임영호(406) △임왕구(407)
△임찬벽(408) △장기풍(409) △장동영(410)
△장석호(411) △장영식(412) △장웅재(413)
△장춘학(414) △장현봉(415) △장홍구(416)
△장효성(417) △전문화(418) △전성천(419)
△전정국(420) △전주룡(421) △정 훈(422)
△정광석(423) △정대환(424) △정동진(425)
△정무진(426) △정백기(427) △정산용(428)
△정수현(429) △정용호(430) △정원영(431)
△정원재(432) △정인식(433) △정재근(434)
△정재준(435) △정종제(436) △정주희(437)
△정철훈(438) △정태규(439) △정화진(440)
△정환구(441) △정희섭(442) △조민호(443)
△조성중(444) △조성파(445) △조용주(446)
△조용학(447) △조원호(448) △조응현(449)
△조원제(450) △조장하(451) △조장희(452)
△조정주(453) △조한모(454) △조현철(455)
△주명로(456) △주성철(457) △주재호(458)
△주재희(459) △지만식(460) △지유철(461)
△지태용(462) △진상문(463) △잔은식(464)
△진조철(465) △진평식(466) △차동득(467)
△차용수(468) △차장옥(469) △채효식(470)
△천익정(471) △최규형(472) △최기철(473)
△최낙삼(474) △최상혁(475) △최선주(476)
△최승식(477) △최승관(478) △최의원(479)
△최재근(480) △최재영(481) △최정근(482)
△최찬호(483) △최잠환(484) △최태선(485)
△편영준(486) △피정현(487) △하만진(488)
△한규태(489) △한동환(490) △한병록(491)
△한상우(492) △한세진(493) △한호동(494)
△함동도(495) △허 민(496) △허규용(497)
△홍내형(498) △홍성범(499) △홍성일(500)
△홍성표(501) △홍용표(502) △홍원표(503)
△홍진표(504) △홍해준(505) △홍희기(506)
△황달연(507) △황선옥(508)

◆농생대 △강희록(509) △계경성(510)
△고영곤(511) △고영환(512) △고현우(513)
△공재환(514) △구본길(515) △구현수(516)
△김경식(517) △김곤래(518) △김석동(519)
△김선점(520) △김영규(521) △김영수(522)
△김영은(523) △김영호(524) △김우석(525)
△김원문(526) △김인기(527) △김일희(528)
△김재욱(529) △김정교(530) △김정구(531)
△김정희(532) △김주호(533) △김지천(534)
△김진수(535) △김철영(536) △김현지(537)
△김형달(538) △김흥선(539) △노의래(540)
△노홍섭(541) △민정희(542) △박 호(543)
△박상홍(544) △박선영(545) △박용제(546)
△박유양(547) △박정근(548) △박종두(549)
△박종민(550) △박종주(551) △박창호(552)
△박형훈(553) △박홍준(554) △백주은(555)
△서원호(556) △서종혁(557) △성기준(558)
△손병구(559) △손종오(560) △신광식(561)
△신명철(562) △신민호(563) △안순경(564)
△안윤식(565) △안장환(566) △안종성(567)
△양재승(568) △오승관(569) △오재섭(570)
△오태광(571) △오학영(572) △왕진두(573)
△우병국(574) △우정식(575) △우종규(576)
△원광식(577) △원하연(578) △원후식(579)
△유석환(580) △유성곤(581) △유이종(582)
△유지성(583) △윤재호(584) △이명동(585)
△이무영(586) △이범래(587) △이병선(588)
△이병철(589) △이삼옥(590) △이상식(591)
△이상훈(592) △이석순(593) △이성규(594)
△이성묵(595) △이성진(596) △이수옥(597)
△이어연(598) △이염돈(599) △이원식(600)
△이은종(601) △이장환(602) △이장훈(603)
△이재영(604) △이정호(605) △이종기(606)
△이중덕(607) △이진찬(608) △이호준(609)
△이홍기(610) △임광환(611) △장 욱(612)
△장세종(613) △전석수(614) △전유현(615)
△정두호(616) △정병호(617) △정승영(618)
△정시식(619) △정용문(620) △정정수(621)
△조원복(622) △조재영(623) △차석정(624)
△최균용(625) △최동준(626) △최무재(627)
△최병주(628) △최병한(629) △최상균(630)
△최양부(631) △최원개(632) △최유동(633)
△하 원(634) △하맹종(635) △하현관(636)
△한기문(637) △한상욱(638) △한왕석(639)
△한중희(640) △한태수(641) △한해룡(642)
△허 홍(643) △현충섭(644) △현호안(645)
△황재문(646)

◆문리대 △강두식(647) △강영남(648)
△강영원(649) △고영근(650) △고인석(651)
△구봉회(652) △권명희(653) △김 명(654)
△김경두(655) △김구현(656) △김덕현(657)
△김동욱(658) △김동일(659) △김병규(660)
△김복주(661) △김상무(662) △김석산(663)
△김석준(664) △김성익(665) △김영국(666)
△김영섭(667) △김영식(668) △김영철(669)
△김연규(670) △김용성(671) △김원배(672)
△김유석(673) △김유영(674) △김차권(675)
△김형일(676) △김호경(677) △김홍철(678)
△나종일(679) △나흔렬(680) △도홍길(681)
△문병택(682) △민경찬(683) △박권상(684)
△박동석(685) △박동영(686) △박승순(687)
△박영배(688) △박영원(689) △박옥줄(690)
△박용오(691) △박종웅(692) △박형달(693)
△백수웅(694) △변용찬(695) △변장명(696)
△서광식(697) △서병철(698) △서일환(699)
△석종성(700) △손영희(701) △송병천(702)
△송종환(703) △신건호(704) △신규철(705)
△신동현(706) △신효순(707) △안병규(708)
△안상경(709) △안정수(710) △양 원(711)
△양칠성(712) △오관영(713) △오권태(714)
△오상태(715) △오인환(716) △오종서(717)
△유세희(718) △유승삼(719) △유진형(720)
△윤광래(721) △유병석(722) △윤용진(723)
△윤임구(724) △윤재문(725) △윤재점(726)
△윤홍로(727) △이 진(728) △이근택(729)
△이기정(730) △이덕길(731) △이동호(732)
△이민우(733) △이백규(734) △이병재(735)
△이범한(736) △이상근(737) △이상택(738)
△이석희(739) △이선숙(740) △이성재(741)
△이승훈(742) △이양길(743) △이용길(744)
△이재룡(745) △이재선(746) △이재현(747)
△이정순(748) △이주영(749) △이참구(750)
△이채우(751) △이항우(752) △이혜구(753)
△임래규(754) △임묵빈(755) △임형백(756)
△장홍열(757) △전우순(758) △전재근(759)
△정기호(760) △정양연(761) △정연권(762)
△정영윤(763) △조 홍(764) △조계찬(765)
△조성식(766) △조성호(767) △조창연(768)
△주영길(769) △지주선(770) △천승권(771)
△최 옥(772) △최상훈(773) △최옥영(774)
△최완식(775) △표재진(776) △한정인(777)
△허성도(778) △홍경화(779)

◆미대 △권경자(780) △권영숙(781)
△김동선(782) △김선영(783) △김영갑(784)
△김정혜(785) △김학두(786) △남용호(787)
△마서연(788) △박근효(789) △박효원(790)
△박은희(791) △박종대(792) △서동화(793)
△안상원(794) △오경환(795) △오영희(796)
△원묘희(797) △윤옥진(798) △이봉숙(799)
△이상하(800) △이성도(801) △이순종(802)
△전석진(803) △조수호(804) △조용숙(805)
△최선등(806) △최성숙(807) △최세연(808)
△최숙경(809) △하재현(810) △홍순무(811)

△홍승숙(71) △황영애(2)

◆법대 △강군우(72) △김문종(76)
△강봉수(65) △강일원(62) △강정면(53)
△강종구(62) △강희복(59) △구남수(59)
△구지업(76) △권대협(71) △권순탁(51)
△권영성(67) △권오기(77) △김기력(57)
△김복자(54) △김상구(59) △김상문(53)
△김수엽(59) △김순권(65) △김영배(55)
△김영배(70) △김영한(66) △김용갑(79)
△김용환(59) △김용환(76) △김재규(53)
△김재락(62) △김정권(63) △김정보(71)
△김정원(67) △김정환(57) △김종기(73)
△김종률(65) △김종식(68) △김종윤(70)
△김종인(75) △김지호(62) △김철자(63)
△김태범(65) △김택수(61) △나기주(63)
△노명준(61) △민병환(62) △박성진(23)
△박요찬(65) △박우순(65) △박인재(75)
△박인환(53) △박종우(70) △박진구(61)
△박태경(65) △배한수(72) △백세웅(63)
△백윤수(65) △백인기(56) △변재금(64)
△서 민(53) △서성영(64) △서태윤(64)
△손석주(55) △손주찬(52) △송동호(66)
△신 홍(52) △신근철(65) △신호철(65)
△안병근(62) △안상돈(63) △오동근(61)
△오세혁(65) △오종한(62) △우영희(66)
△우익원(59) △이귀호(58) △이규륜(70)
△이기환(60) △이대영(71) △이동근(71)
△이동렬(72) △이보영(56) △이석봉(49)
△이수영(72) △이수영(73) △이진웅(59)
△이채주(57) △이철신(64) △이태식(61)
△이태진(65) △이한교(56) △이회창(57)
△이효두(65) △임승제(71) △장 호(71)
△장재식(56) △정상하(60) △정용달(63)
△정진영(61) △정창호(69) △조경래(55)
△조재건(67) △조한동(59) △조헌수(62)
△조홍식(67) △주기식(71) △지홍식(60)
△채 윤(62) △천기필(59) △최귀인(60)
△최병무(63) △최상근(62) △최성주(68)
△최영덕(53) △최원택(41) △최용식(73)
△최준호(56) △한계희(49) △한근무(49)
△한만춘(42) △한명환(64) △한주상(67)
△허민조(68) △현대우(56) △홍순범(52)
△홍일표(61) △황선익(72) △황심재(70)
△황윤주(57)

◆사대 △권경종(73) △김경자(67)
△김기준(63) △김덕빈(49) △김병자(46)
△김봉규(64) △김삼순(40) △김삼대(60)
△김석현(60) △김선주(60) △김소연(59)
△김순동(68) △김순신(51) △김영자(66)
△김영자(72) △김근식(55) △김인중(76)
△김정희(62) △김혜원(59) △김혜정(55)
△나민주(69) △남복희(43) △노동선(61)
△노진양(59) △노희관(58) △문점덕(42)
△박기수(69) △박덕래(64) △박문태(53)
△박미성(66) △박부권(75) △박상대(79)
△박삼태(54) △박상우(68) △박상원(61)
△박수간(73) △박수일(65) △박승덕(59)
△박연수(62) △박영민(66) △박영배(57)
△박용수(75) △박윤주(72) △박제학(57)
△박종신(63) △박종수(75) △박하성(57)
△박형렬(63) △박희문(60) △방재곤(66)
△백남수(45) △변범식(63) △변희주(71)
△선우삼(64) △송재식(59) △송재주(59)
△송춘영(46) △신부경(61) △신철자(55)
△심영자(63) △심용섭(61) △양재만(50)
△양태일(63) △오성종(62) △우인섭(51)
△원필순(71) △유기웅(72) △유길준(59)
△유상주(62) △유성렬(77) △유희임(68)
△이강석(61) △이계산(79) △이계학(62)
△이달호(50) △이덕자(53) △이두현(50)
△이득우(61) △이상교(65) △이상구(58)
△이상용(67) △이성규(61) △이성진(67)
△이순녀(40) △이영호(66) △이몽상(77)
△이원교(57) △이정호(70) △이종명(68)
△이종원(57) △이한구(70) △이향구(61)
△이희철(50) △임문식(61) △임효숙(65)
△장선약(41) △장성원(61) △전수남(53)
△정규동(53) △정기탁(74) △정대영(57)
△정문용(75) △정선영(70) △정은호(63)
△정의상(60) △정참오(63) △조남진(63)
△조용선(61) △조은분(42) △조평화(73)
△조희성(55) △조희식(53) △주용규(54)
△지충성(61) △진영일(55) △차도완(59)
△채미영(65) △최갑순(56) △최명순(58)
△최병순(74) △최병호(61) △최상구(62)
△최수옥(58) △최용섭(58) △최익규(56)
△추전이(63) △탁동근(58) △하현준(62)
△한동현(43) △한상덕(62) △함기동(62)
△함오연(74) △함종구(50) △허 영(65)
△허덕수(67) △홍길표(73) △홍종봉(58)
△황 주(69) △황경화(57) △황도생(68)
△황새열(59) △황혜복(83)

◆상대 △강 영(71) △강신용(62)
△고광범(63) △고을상(56) △구하서(49)
△권동수(58) △권영욱(59) △권영진(54)
△김규식(58) △김동수(63) △김박수(72)
△김상경(67) △김상희(71) △김우년(61)
△김윤기(55) △김은수(62) △김재현(45)
△김정광(69) △김종석(63) △김종원(61)
△김종찬(61) △김주식(74) △김지환(63)
△김진주(60) △김참수(72) △김홍배(67)
△남동균(75) △도민섭(61) △명영산(60)
△박경석(57) △박동순(61) △박암규(64)
△박영점(63) △박옥서(61) △박재준(67)
△박충식(58) △배종섭(63) △백기덕(69)
△서정보(53) △석대진(60) △석풍장(65)
△소구영(64) △손기점(62) △손호복(61)
△송승호(55) △송인덕(69) △신문철(55)
△신범식(59) △신위철(49) △심남진(53)
△심정수(77) △양성환(62) △엄홍섭(52)
△연기학(72) △예종호(59) △오갑영(42)
△원한섭(60) △유대진(56) △유통운(71)
△유방찬(63) △윤승두(43) △윤영원(60)
△이기철(31) △이동수(65) △이동훈(43)
△이성재(57) △이수신(70) △이승구(65)
△이원규(61) △이장호(69) △이정배(64)
△이홍근(74) △이홍식(60) △임봉구(66)
△전영배(58) △정방우(73) △정연덕(58)
△점영국(69) △정익준(72) △정인성(75)
△정정숙(53) △정조용(65) △정현진(75)
△정호용(55) △정희경(65) △제반수(65)
△제정오(83) △조송경(59) △조태준(60)
△조현문(64) △주원식(64) △진성주(61)
△차동세(55) △최석절(62) △최익재(72)
△최재혁(53) △최준환(70) △최진배(76)
△최충호(56) △한도형(73) △한상현(65)
△한석정(63) △허남수(56) △현호경(51)
△홍순태(67) △홍충수(74) △황하현(51)

◆생활대 △강은영(60) △경희호(64)
△김남미(7) △김성문(67) △김은희(7)
△방효석(61) △성현경(71) △이미영(67)
△이재선(60) △이정규(79) △임화재(63)
△장기숙(72) △조진희(54) △표은경(76)
△홍문자(65) △홍혜옥(7)

◆수의대 △고영규(62) △구본수(57)
△권순호(57) △권호문(62) △김동환(62)
△김배원(64) △김부원(67) △김종건(69)
△김창수(69) △박희춘(70) △성의제(69)
△성재현(66) △신상익(59) △양호석(56)
△유명선(73) △윤석찬(71) △이강훈(64)
△이병옥(51) △이은송(67) △임봉택(59)
△장세종(69) △정정헌(65) △정진희(56)
△정태석(69) △조기현(53) △조병용(65)
△지성학(67) △최성호(61) △최임식(65)

◆약대 △강정훈(67) △팽효선(67)
△김경희(66) △김기헌(56) △김상영(62)
△김성모(79) △김영호(62) △김원묵(62)
△김정수(62) △김형국(62) △김화자(55)
△남기혁(56) △맹민영(60) △박종우(56)
△박종택(67) △박채강(67) △서준석(51)
△송진홍(66) △신기채(61) △신영철(53)
△오익상(73) △옥숙희(54) △우재성(75)
△원희락(7) △유기선(47) △유병환(79)
△유한호(64) △이갑열(57) △이갑희(57)
△이규순(67) △이동석(62) △이문형(50)
△이상구(59) △어순석(65) △이순효(51)
△이영태(70) △이오지(54) △이원목(60)
△이원재(57) △이재양(57) △이재철(76)
△이재헌(61) △이정재(64) △이준행(49)
△이홍식(52) △임충람(57) △장덕기(80)
△전정수(61) △조우재(42) △조인휴(48)
△조자용(53) △채영주(59) △천길순(56)
△최민식(60) △최수영(63) △최정수(70)
△최정애(64) △한병훈(56) △한복영(49)
△한승범(73) △한진호(63) △허 용(47)
△홍시항(53)

◆음대 △강점숙(54) △고순자(50)
△김금수(60) △김상원(51) △김영진(60)
△김오경(72) △김원식(50) △김은경(61)
△김은옥(60) △김희자(59) △문병자(68)
△민희경(62) △박수전(71) △방효선(74)
△서혜연(66) △신영자(67) △신윤식(74)
△신정화(61) △안덕수(64) △여홍은(40)
△오유애(60) △오진옥(72) △우시현(59)
△윤혜영(65) △이건희(58) △이규용(60)
△이명학(59) △이정수(53) △임진수(67)
△장정원(61) △조길자(66) △차광혜(67)
△최보금(69)

◆의대 △강내열(62) △강대희(67)
△고점석(67) △권희정(61) △기만덕(64)
△김경일(62) △김명이(65) △김병업(56)
△김병일(61) △김성한(59) △김수태(52)
△김연수(68) △김우영(49) △김윤수(64)
△김응진(59) △김재명(63) △김정근(60)
△김진혁(64) △김철규(54) △김춘길(64)
△나종두(77) △노분진(54) △노인화(68)
△문정주(63) △박경찬(60) △박경환(77)
△박도중(58) △박성원(46) △박영일(50)
△박종민(77) △변종화(56) △서광률(49)
△서환조(60) △성상현(73) △송선보(47)
△송운영(61) △신순현(68) △심태섭(62)
△양재현(76) △양원용(75) △오경균(69)
△오세기(67) △오세용(69) △오정성(73)
△유방환(61) △유언호(60) △유영성(77)
△유영혜(48) △유재호(69) △유재훈(47)
△유종근(77) △윤용범(72) △윤자헌(58)
△이근후(43) △이범구(79) △이상곤(73)
△이선호(59) △이수동(75) △이연복(58)
△이원기(65) △이종구(42) △이종일(54)
△이중근(63) △이찬세(49) △이창홍(60)
△임 영(61) △임승운(60) △임용철(52)
△장영길(69) △전대한(55) △전종휘(55)
△전지일(55) △정두용(79) △정등남(58)
△정제일(59) △조세현(74) △주정화(58)
△최복식(69) △최일형(61) △최희옥(67)
△탁용준(51) △하정훈(63) △한기준(58)
△한덕종(73) △한정구(62) △허 훈(51)
△현응성(51)

◆치대 △강석봉(59) △강신구(71)
△강우곤(70) △강윤모(60) △구철회(49)
△권지영(58) △김공배(62) △김기혁(51)
△김기호(61) △김기홍(61) △김덕상(66)
△김병환(59) △김선해(58) △김영관(63)
△김용상(67) △김우성(68) △김의배(56)
△김인수(61) △김진홍(64) △김창집(67)
△김경희(75) △박경정(75) △박동규(63)
△박상남(65) △박시우(58) △박용한(64)
△박충서(70) △서성구(61) △손오영(58)
△송재용(66) △송현미(65) △안건모(59)
△양상덕(63) △여종환(60) △오용서(47)
△오인식(56) △위문정(77) △유현호(60)
△윤희철(61) △이건수(71) △이명호(78)
△이민영(62) △이승표(59) △이영식(79)
△이영종(64) △이영훈(54) △이영희(60)
△이원철(59) △이철민(53) △이현석(68)
△임형순(70) △임희숙(60) △전영삼(66)
△정교현(62) △정박민(55) △정영한(78)
△정재균(65) △정필호(79) △조광한(74)
△조기성(74) △조상범(69) △조한국(58)
△차경석(73) △최명진(61) △최세원(63)
△최승근(70) △최인선(68) △최종운(67)
△최치갑(69) △하태성(67) △한성희(69)
△허정국(59) △홍금표(58)

◆대학원 △김봉환(65) △김송득(61)
△김영한(68) △김진수(65) △김창남(63)
△남홍우(61) △모수미(75) △문수진(77)
△박용희(65) △백승용(63) △변종영(71)
△송석훈(70) △이건수(61) △이광재(73)
△이재정(72) △이철희(55) △장탁중(66)
△정수경(71) △조관형(68) △주승기(75)
△주형돈(57) △최천식(7)

◆경대원 △김상준(59) △송윤희(56)
△윤강훈(60) △이기희(61) △이용석(59)
△이효정(59) △지차상(62)

◆교대원 △김정휘(73) △점원룡(73)
△황현익(65)

◆보대원 △김대규(65) △김미배(73)
△문성환(59) △박담우(64) △박미진(61)
△신학기(61) △유승진(61) △윤기은(72)
△이송권(73) △이용상(73) △이형진(67)
△한서경(67) △홍수정(68) △황석천(62)

◆사대원 △김기현(63) △송정호(68)
△이원심(64) △이치호(70)

◆신대원 △강대근(76) △박찬순(72)
△오인태(69)

◆행대원 △김한곤(71) △신상준(66)
△유금록(83) △유동재(69) △이강우(61)
△잠승태(61) △지동하(62)

◆환대원 △감은순(71) △김경윤(69)
△김경현(68) △서상국(67) △안점진(75)
△안은주(54) △양재열(71) △오무근(75)
△윤종식(51) △이규환(77) △조재휴(68)
△허일도(63) △황충규(59)

◆AMP △강진경(43) △공덕수(55)
△김강정(46) △김광영(25) △김길조(53)
△김병두(74) △김병윤(9) △김부중(42)
△김상선(47) △김선하(53) △김성섭(47)
△김성환(67) △김소식(8) △김수환(15)
△김영도(53) △김의규(54) △김재운(51)
△김종남(40) △김종엽(78) △김진형(43)
△김철환(5) △김한수(41) △김홍기(49)
△김홍주(8) △마창완(24) △문정국(41)
△분참복(62) △민영복(42) △박노운(49)
△박석휘(62) △박수웅(33) △박순일(32)
△박참민(46) △박정호(43) △박종구(2)
△박춘택(47) △박현수(56) △배봉기(59)
△백운광(9) △서강유(3) △서승화(52)
△서종덕(12) △손대성(55) △손성운(50)
△신문범(53) △신세웅(6) △신홍균(50)
△안과순(28) △안종근(54) △안치민(41)
△양창규(59) △양철형(47) △오동빈(22)
△유영걸(29) △유재천(51) △윤대영(55)
△윤종곡(54) △윤종수(23) △이경후(32)
△이범구(16) △이병대(47) △이창석(41)
△이상국(1) △이수경(6) △이영석(42)
△이영숙(3) △이운규(23) △이유신(52)
△이잠국(42) △이정상(43) △이종원(53)
△이재욱(54) △이철희(21) △이호수(35)
△이훈동(2) △임종이(55) △위창섭(1)
△장기효(50) △장영선(1) △전태성(28)
△정일기(58) △정필모(2) △조내복(31)
△조발래(40) △조준현(44) △조한용(54)
△진상섭(10) △채수삼(39) △최경희(38)
△최기원(10) △최세필(5) △최원두(53)
△최호정(28) △최화길(34) △한용외(39)
△한재열(2) △한지훈(54) △허경옥(46)
△황경규(53) △황인수(29)

◆AIP △강명영(29) △강봉기(60)
△고석태(23) △고희수(23) △공영래(30)
△곽상옥(9) △권오일(30) △김경원(4)
△김동섭(6) △김동하(29) △김수영(12)
△김영돈(30) △김옥정(29) △김재후(20)
△김진수(29) △김주영(3) △남궁현(3)
△박기상(13) △배영택(28) △서원진(20)
△소병규(19) △신용희(29) △신정식(13)
△심규진(12) △양참현(18) △오세희(2)
△옥남선(6) △윤명수(10) △이광사(27)
△이명호(20) △이상철(3) △이성남(29)
△이영득(9) △이영삼(5) △이용수(22)
△이재욱(14) △이참섭(29) △이충연(14)
△이현영(8) △이희평(13) △임치원(18)
△임점호(25) △장영근(23) △장희천(20)
△정수천(7) △조종제(14) △최용식(26)
△최정규(1) △최진용(29) △한승욱(27)
△현승기(5) △황중연(33)

◆ACAD △강삼영(56) △강영식(52)
△권영해(15) △김기영(42) △김남경(41)
△김복득(45) △김상태(45) △김서환(19)
△김수만(56) △김재진(32) △김참식(45)
△김현수(30) △김호연(1) △김황봉(4)
△노재우(16) △문장인(5) △박기점(39)
△박상만(49) △박수환(4) △서정도(35)
△손진영(12) △신은우(56) △안신환(34)
△안영기(50) △안인순(55) △유갑종(24)
△유영우(35) △유용근(38) △이관범(70)
△이근일(46) △이덕수(44) △이석봉(2)
△이성우(47) △이영화(1) △이은휴(46)
△이종언(65) △이태영(1) △이희찬(39)
△이희평(34) △전 홍(48) △전윤수(39)
△정완기(62) △조갑호(7) △조정민(30)
△지태욱(20) △진재철(45) △채종식(13)
△홍윤호(46) △황갑주(48)

◆ABP △강신화(1) △구태군(7)
△김정갑(5) △배판규(7) △변정서(14)
△오종환(21) △유평규(7) △조현석(11)
△채영철(29) △홍우표(3)

◆SGS △민상금(1) △박남식(2)
△박용하(2) △박준섭(6) △서선호(4)
△유장식(6) △전우대(2) △조백일(6)

◆CHCN △신경주(10) △정경린(8)

◆APC △강상기(8) △강석훈(1)
△강재수(7) △김참섭(6) △김향태(6)
△박경준(7) △서평곤(5) △송기순(4)
△안재주(9) △양희승(8) △윤종아(9)
△이재덕(5) △조승식(4) △조참현(7)
△주재헌(4)

◆HPM △강영남(9) △권강주(3)
△권병철(1) △권영욱(1) △김광화(9)
△김낙기(12) △김문하(5) △김진섭(10)
△김홍구(12) △박 운(4) △박길영(10)
△백성기(4) △서원영(7) △손규호(1)
△신경식(1) △오세진(12) △이광재(3)
△이동석(12) △이상복(5) △이재순(10)
△이충섭(8) △이태수(6) △전영구(1)
△전영숙(5) △정재규(2) △정지행(5)
△주숙연(1) △진선두(7) △최병수(1)
△최승용(5) △최재영(2) △최재호(1)
△한상섭(1)

◆AMPP △신기찬(2) △전달왕(2)

◆AIC △김성만(9) △성기혁(13)
△성진용(10) △유명환(8) △이종명(2)
△이지원(10) △장낙진(13) △조한수(1)

◆AFB △김명호(2) △김연숙(1)
△김진태(3) △윤호섭(1) △이군자(1)
△이동수(1) △이철호(2)

◆AMFR △박진태(2) △유병무(2)
△유재만(2) △윤한교(2)

월	거 : 91,670,868원
평상회비 :	56,800,000원
입 호 비 :	20,000원
총	계 : 873,029,792원
	+2,000$

PDF & E-book Design HANWOORISJM